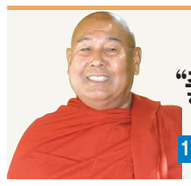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9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9월 17일(음력 8월 18일) 수요일(주간)



"좋은 생각하면 건강"
17 선지식-印 가네쉬와르 스님



"고전·근대 문학 속의 비구니"
14 이향순교수 '비구니와 한국문학' 펴내



"작은 절에서 큰 음악가 나왔다"
4 신림동 정혜사의 음악 영재



붓으로 시를 그리다
19 문학 50년 그림전 연 고은 시인

MB 유감표명 "미흡"

범불교대책위, 대구경북 불교도대회 강행 방침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국무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불찰"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불교계는 미흡하다며, 지역별 범불교도대회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9일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불교도대회 4대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불교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학 스님은 논평문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유감을 표명한 것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 재발방지 지시를 한 것은 이전 보다 성의 있는 자세라고 본다"며, " 하지만, 아직 나머지 경찰청장 파면과 공직자 종교편향 근절 입법조치, 시국 관련 국민대화합 조치의 3가지 결의사항이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교단체 일제히 성토 분위기= 범불교대책위의 비교적 온화한 논평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대한 불교 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성토 분위기 일색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는 9일 "어청수 경찰청장 옹호는 '종교차별 관련자 감싸기'로 현정부에 더 이상 기대는 어렵다. 이웃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경주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분명한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없는 '유감' 표명은 불교에 대한 또 다른 폄하이며 농락"이라며 "성의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지역별 범불교도대회에 이어 범국민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미흡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불교계 4대 요구안에 대한 청와대 최종결론은 '밀리면 안된다'는 정치공학과 '소망정치'의 합작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 조계종 원우회(회장 장영욱)도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차별에 대한 유감표명은 요식행위며 대통령과의 대화는 흘릉한 연기였다"고 혹평하고, "불교계 4대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상생과 화합의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실무소위 구성=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실망한 불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 개최에 불교계 역량이 결집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 주요 종단 수반과 대구경북지역 불교지도자 130여명은 9월 10일 동화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대구경북 범불교도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구경북지역 교구본사 총무국장과 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추천위원 1인, 비구니스님 대표 2인, 재가신행단체 대표 5인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정부가 추석 이전까지 불교계의 4대 요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 범불교도대회 봉행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어 청장 무례한 사과방문 역효과=한편, 불교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10일 긴급간담회가 열린 동화사를 방문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경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관 스님을 만나 "큰스님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손을 잡았으나, 지관 스님은 말없이 회의장으로 향했다.

어 청장은 2시간여 동안 간담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지관 스님을 다시 찾아갔으나, 불자들이 "경찰청장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막아서자 오후 7시20분경 동화사를 떠났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불교계에 대한 어 청장의 사과를 지시한 데 따른 사과방문은 막무가내식의 결례로 대구지역 불자들의 반발심만 키운 셈이 되었다.

추석을 전후해 어 청장 문책 등 불교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 또 한번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모아질 전망이다. 종교화합을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 발전을 이뤄 온 국민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참회와 종교편향방지법 입법 등 전향적인 대안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김성우 · 노덕현 기자

4개 종단 종교인 268명 北식량지원 촉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9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갈등 해소와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는 종교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악화되어 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일에 먼저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소문에는 불교 52명, 카톨릭 51명, 개신교 115명, 원불교 51명 총 268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명으로 지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무례한 방문에 또 성난 불심 어청수 경찰청장이 9월 10일 오후 '대구경북지역 불교대표자 간담회'가 열린 대구 동화사를 찾았다. 어 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종단 대표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공양 중인 '선열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부대중의 거센 항의로 인해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지관 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박재완 기자

社 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특정종교의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 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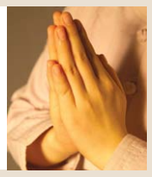
■ 문의 대표(02)2004-8200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직원일동-

제1회 이상시문학상 시상식 안내

■ 수상자 이승훈 시인(한양대 명예교수) ■ 장소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지하2층 ■ 일시 2008년 9월 23일 6시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법왕사 제18회 세계평화남북통일기원
경율론(經律論) 삼 장(三 藏) 백고좌 대법회 회향



종진스님 해인사율주

법왕사에서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18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백분의 큰스님을 모셔다 100일동안 설법하는 법회로 법왕사에서는 창건 이래 18여년동안 열일곱 차례의 백고좌법회를 열었는데 매번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불교의 핵심인 경율론 삼장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택하여 오는 6월 18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 100일동안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 1백분을 모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법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발원을 담아 뜻깊은 법석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실 상 합장

〉〉회향 법문 및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봉행
〉〉9월 30일 오전 11시 / 동참금 : 20,000원
※ 불명 받으실 분은 미리 종무소로 접수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6월 18일(수) ~ 9월 30일(화) 100일간
매일 오전 9시 (108배 3번) 매일 오전 11시 (법문)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 증명 : 조계종 원로의원 원공 정무

※ 동참 신행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76일차_9월 1일 도진스님 (직지사 중암)
77일차_9월 2일 상훈스님 (쌍계사주지)
78일차_9월 3일 진철스님 (만불선원)
79일차_9월 4일 화암스님 (포천/동화사주지)
80일차_9월 5일 일진스님 (운문사학감)
81일차_9월 6일 성해스님 (정혜사주지)
82일차_9월 7일 도영스님 (완주/송광사주지)
83일차_9월 8일 송현스님 (통도사한주)
84일차_9월 9일 혜창스님 (김용사주지)
85일차_9월 10일 여연스님 (일지암주지)
86일차_9월 11일 원오스님 (도림사주지)
87일차_9월 17일 만성스님 (토굴정진)
88일차_9월 18일 용타스님 (계행복마을재단이사장)
89일차_9월 19일 혜인스님 (광덕사회주)
90일차_9월 20일 도성스님 (前 해인사주지)
91일차_9월 21일 금담스님 (극락선원회주)
92일차_9월 22일 대원스님 (각원사)
93일차_9월 23일 일초스님 (前 동학사강주)
94일차_9월 24일 상덕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95일차_9월 25일 효범스님 (부처님마을주지)
96일차_9월 26일 원범스님 (선암사주지)
97일차_9월 27일 지산스님 (관음사주지)
98일차_9월 28일 성타스님 (불국사회주)
100일차_9월 30일 종진스님 (해인사율주)

• 백과좌법회 CD 테이프 판매 제18회 백고좌법회 고승대덕 큰스님 법문 테이프와 CD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관계로 백고좌 법회에 동참 못한 가족, 친지 및 이웃에게 법문 테이프, CD를 구매하여 전하는 불법홍포의 좋은 인연을 지으시고 복전의 선근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테이프 : 2천원 CD : 3천원



산사의 향기를 따라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불자님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 코스 : 백담사-오세암-봉정암(대청봉)-수렴동계곡
• 일시 : 10월 10일(금) ~10월 12일(일) 2박 3일 밤 12시
• 장소 : 법왕사 주차장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백고좌법회 회향
삼사순례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백고좌법회 원만 회향 기념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 벽송사, 실상사, 금대암을 순례하는 삼사순례법회를 봉행드립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가을 단풍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전 8시
• 장소 : 법왕사 주차장
※ 차량 및 공양 관계로 미리 종무소로 접수 바랍니다.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말뿐인 "유감 · 사과" 말고 진참회 하길

9월 9일 불교계의 종교편향 시비에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불교계에 건넨 말은 "유감"이다. 오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불찰'이라 발언했다.

흥미롭게도 불교계에 유감을 전한 이 대통령 발언 수위는 외교언어 단계와 유사했다. 외교상 유감은 4단계의 영어 표현으로 나뉜다. '예의주시한다'는 정도의 'not indifferent'가 1단계, '미안하다'는 정도의 'express concern'이나 'sorry'가 2단계, '사과'나 '사죄'할 것까지 없는 유감은 'regret'로 3단계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뜻이 내포된 'apology'는 4단계의 유감표현이다.

불교계를 살피며 차근히 1~2단계를 밟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하루 동안 3~4단계를 모두 보였다. 오전 '유감' 표명 후에도 불교계 성토가 끊이지 않자,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4단계의 '불찰' 카드를 내놨다. 불교계가 줄곧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계산적인 정치적 수사의 결과였다.

대통령이 차근히 단계별로 밟아 보인 유감 표명에 불교계 자존심은 그슬릴대로 그슬렸다. 종교편향 정점에 선 대통령 마인드가 이렇다보니 수하의 어청수 경찰청장이라고 다를 리 없었다.

참회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일이다. 죄 지은 비구는 참회할 때 참회오법(懺悔五法)을 따른다. 오른 어깨를 드러내 경의를 표하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대비구 발에 절하고, 범한 죄명을 말하는 것이 절 집안 참회예법이다.

한때 불자였던 어청수 경찰청장은 8월 14일 주요사찰 주지스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진참회(眞懺悔)로써 불교계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라고 적었다.

'진참회'를 언급했던 어 청장이 9월 10일 대구 동화사를 찾아 지관 스님에게 합장도 않은 채 다가가 "큰스님 저 왔습니다"하며 덥석 손부터 잡아 보였다. 이어 막무가내로 공양간으로 스님을 찾아 들어가려던 어 청장 때문에 동화사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참회오법의 예는 고사하고, 참회의 마음가짐조차 안된 오만불손한 모습에 불자들은 또 한번 상심했다.

<육조단경> 참회품에서 "참(懺)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요, 회(悔)는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해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라 했다. <천수경>은 "죄와 마음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진참회(罪亡心滅兩俱空 是則名爲眞懺悔)"라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경찰청장은 '유감'과 '사과'만 말하지 말고,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게 진참회하길 바란다.

환경단체 "케이블카 안돼"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이명박 정부 개발논리에 편승한 가지산의 케이블카 사업에 불교계가 환경단체 등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케이블카로부터 수행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가지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 불교계 연석회의' 등 불교계 단체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상임대표 유정칠) 등 35개 단체는 9월 9일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국립 · 도립 · 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자연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이 이명박 정부 환경정책의 현주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행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김혜애 협동사무처장(녹색환경연대)이 낭독한 출범선언문에서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는 "'성장과 개발' 담론이 자연공원에도 케이블카 건설이라는 모습으로 광풍처럼 밀어닥치고 있다"며, "케이블카 건설시도가 자연공원법 개정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고했다.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는 이어 "케이블카는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훼손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케이블카가 경제성이 높다, 지역발전에 도움된다, 환경보호시설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 설명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자연공원 7곳 케이블카가 적자인 상황에도 이명박 정부 개발논리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빚어질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출범선언에 앞선 각계 의견발표에서 윤주옥 사무처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1990년대 일본에서 케이블카 붐이 일었지만 흉물로 방치됐던 것을 2008년 하코네 국립공원서 철거되기 시작했다"며,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임희자 사무국장(마창진환경연합)은 "2000년 이후 가지산-얼음골 케이블카는 수차례 사전환경성검토 등에서 부당함이 지적돼 사업폐기 단계였다"며, "이명박 정권 개발논리에 휘말려 다시 가지산-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정우식 사무처장(불교환경연대)은 "케이블카는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 아니다. 불교계도 환경단체와 힘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반대전국대책위원회는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9월말 설악산 · 내장산 등 현행 케이블카 운영 공원 실태조사 자료집을 발간하고, 가지산 등 예정지 조사를 통해 불가사유의 타당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선언식 후에는 '자연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주경 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조계종 승려들은 수행자임과 동시에 자연유산 상속인"이라며, "케이블카 건설로 수행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조계종,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 법회 조계종은 9월 9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불자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 법회를 열고 선수와 임원 100명에게 감사패와 순금목탁 및 격려금을 수여했다. 박재완 기자

종교 지도자도 '종교평화' 한목소리

천주교·원불교 대표 9일 지관 스님 잇따라 예방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들도 '종교평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천주교, 원불교 대표자들의 잇따른 예방을 받고 종교평화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9월 9일 오후 3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장익 주교,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주교가 함께 방문했으며, 45분뒤에는 이성택 교정원장이 예방했다.

장익 주교(춘천교구장)는 "최근 종교차별과 관련하여 천주교도 걱정이 많으며, 길게 보면 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일부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다.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내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개인의 종교는 존중돼야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로서 나라가 불행한 일이다"고 지적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리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장익 주교는 4대종교 성직자 축구대회, 교구의 신부 · 수녀들에게 <선가귀감> 책선물 이야기, 오래전부터 불교공부를 하고 불교 인사들과의 인연이 있었음을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곧바로 이어진 예방에서 원불교 이성택 교정원장은 "이처럼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마음 깊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종교의 뿌리와 가르침은 모두 통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관이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주교 대표 예방에는 주교회의 사무국장 변승식 신부, 원불교 대표 예방에는 김대선 문화사회부장이 배석했으며, 조계종에서는 사회부장 세영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함께 자리했다. 김성우 기자

"출가발심 정각으로 이어지길"

제35기 행자교육원, 사미 · 사미니계 138명 수지

예비승려교육을 마친 행자들이 수계를 통해 예비승려로 다시 태어났다. 9월 8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된 제35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에서는 138명의 행자(남행자 67명, 여행자 71명)가 사미계 · 사미니계를 받았다.

138명의 사미 · 사미니는 8월 17일 입교 갈마를 통과한 140명 행자들 가운데 23일간 예경의식과 작법, 부처님 생애와 기본교리 등을 교육받고 9월 7일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행자들이다.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회향사에서 "법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을 축하한다. 법에 의해 생각하고 법에 기초한 행동을 하라"고 격려와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사미 · 사미니계를 수계한 예비스님들은 앞으로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대학, 기본선원 등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 수학한 후 4급 승가고시를 거쳐 정식 스님(비구 · 비구니)이 된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현조스님 당선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현조 스님이 당선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9월 10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28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83명이 투표에 참가해 91표를 얻은 현조 스님이 90표를 얻은 현관스님을 1표차로 제치고 당선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 개최

제178회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자승) 임시회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자 종교편향과 관련한 현안을 비롯해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사찰등록관리법안 등 종법 제 · 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전통불교문화센터 상량식…12월 개관

2만5천㎡면적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9월 10일 마곡사 인근현장(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신재민 문화부 2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불교문화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센터가 준공되면 전통문화 계승 · 발전을 위한 사업과 각종 교육 및 수행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센터건립으로 인해 많은 내외국인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전통불교문화센터는 총면적 2만5천㎡에 숙박동과 교육행정동 등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공 대한불교원효종 지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 · 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종단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몇 몇 스님들의 노고로, (2007라1580) 2008년 8월 25일자로 김윤철(향운)스님을 임시 종정으로 정함에 따라 종단에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순서(용일)스님 측, 최병일(덕산)스님측, 우종산(청은)스님측 등의 위촉 · 임명 또는 임원 · 의원 등 모든 임원의 직책은 법적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갱신범위 :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2.갱신기간 : 2008년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수 수 료 : 총무원으로 문의
4.문 의 처 : 서울연락사무소 02)735-0501~2
총무원 052)262-6857

※ 재정비 후, 원효종 전 종도대회가 있을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김윤철(향운)

줄 잇는 종교편향 끝은 어디에…

경찰·검찰·유치장·지하철까지 안전지대는 없다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국민과의 대화'에서 각각 불교계에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의 사슬을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보다 대한민국 곳곳에 발생하는 종교편향의 뿌리는 깊었다. 연일 계속되는 종교편향 사례를 모았다.

◇**안상수 인천시장, 작년 이어 또 '복음화' 공언**=2007년 1월 성시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이번에도 "인천을 세계복음화 관문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개신교 관련시설에 지나친 예산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2009년 1월 개관할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15억원, 제물포 웨슬리교회 예배당 복원비로 20억원 지원방침을 세우고 국비를 포함한 9억원을 10월중 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선교역사기념관과 웨슬리교회 예배당에 지원된 35억원은 인천시가 올해 133개 사회단체에 지급한 19억4000만원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여기에 안상수 시장이 2008년 1월 성시화운동법인 주최 조찬예배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연세대에 세계선교센터를 건립해 한반도 관문인 인천을 세계 복음화 관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 수사 중 특정종교 강요**=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9월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현선 검사와 강모 계장이 조사 받던 고소인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고 발표했다. 종평위는 "특정종교 강요에 고소인이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소인의 요구는 무시됐고, 김 검사는 같은 특정종교인이었던 피의자와 차별적으로 대하며, 고소인을 회유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9월 3일 남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김현선 검사는 같은 날 '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사건처분결과 통지를 했다.

◇**영중초교 교사,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립학교인 영중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 중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대하는 등 종교편향 · 차별을 했다는 제보내용이 접수된 상태다.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등의 발언으로 특정종교를 찬양한 교사는 특정종교 선교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부모님과 공부하라"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 남부교육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지하철도 종교편향 지대**=국가기반시설이며 서울시 소속 공기업인 서울 지하철 역사도 종교편향에 노출돼 있었다. 종평위는 9월 3일 예방활동 사업 중 1 · 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 4호선 사당역, 5호선 아차산역, 6호선 합정역사 내에 설치된 쉼터에 특정종교 홍보물 등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선교활동을 펼친 것을 지적하고 시정요청했다. 특히 4호선 사당역사에는 서울메트로기독교신우회 사무실에 특정종교 선교단체인 교통문화선교회와 교통문화협의회가 무상 입주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진경찰서 유치장 내 전도활동**=경찰서 유치장서도 특정종교는 강요됐다. 8 · 15 광복절 집시법 위반으로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강모씨 등 10여명은 8월 16일, 유치장까지 찾아온 특정종교 전도사를 만나야했다. 강모씨는 찬송가 · 성경내용을 읽고 기도의식을 진행하는 전도사에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유치장 수감원칙'을 거론하며 담당경관에게 항의했으나, "상부의 지시며 관례"라는 답변과 '기독교신문'이 전해졌다. 8월 17일에는 목사가 계속 방문해 기도까지 했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9월 11일 광진경찰서에 사실확인과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 **일부 목사, 불교계 폄훼 망언 릴레이**=신일수 목사(서울 할렐루야성결교회)는 공개기도회에서 불교계에 망언한 장경동 목사를 두둔하고 종교차별에 반발한 불교계와 스님들을 막말로 비하해 비난을 샀다. 신 목사는 설교 도중 "머리 민 정신나간 사람들이 정권퇴진하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나랏돈이 절간에 얼마나 쓸데없이 많이 가는지 모른다"고 불교계를 비하했다.

이어 신 목사는 "부처님이 살아있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발언을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국민대화합 국토수호 대장정 출정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일간 국토 순례



국민화합범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11일 파고다공원에서 '범종교 범종단' 화합을 발원하며 십자가 · 단군 · 불상을 등에 지고 국토수호 대장정에 나섰다.

'국민 대화합 국토수호 대장정 출정식' 환송 행사가 9월 11일 서울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거행됐다.

'국민 대화합 범불교 종단협의회' 의장 가산 스님(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은 "지표와 탈출구는 오직 하나다. 국민이 똘똘 뭉쳐 대화합해야 한다. 부처님과 단군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로 화합해 가난한 자와 중생을 향해 걸어 나아가야 한다"며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이번 출정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마성 · 3 · 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마조 · 지원 스님은 20일 동안 한반도의 3 · 1운동 정신이 깃든 곳을 도보 순례하며 부산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다. 9월 28일에는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용성조사의 탄생지 죽림정사에 도착해 3 · 1절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할 예정이다. 가연숙 기자

4대종단 성직자 축구대회

불교 · 원불교 · 개신교 · 천주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은 9월 8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화해와 평화 기원 4대 종교 성직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종교간 협력과 화해의 본분을 살려 대회가 은혜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 종교 선수 선서와 대표들 시축에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불교팀은 1차전에서 가톨릭팀을 3대 0으로, 결승전에서 원불교팀을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우승한 불교팀을 비롯해 2위 원불교팀, 3위와 4위를 차지한 개신교팀, 천주교팀 모두 지난 대회의 전통을 살려 상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관련 토론회 잇따라 열려

9월 10 · 11일 각 종교 대표들 열띤 토론

공직자 종교편향과 관련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9월 11일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공직자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박광서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원철 스님,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 우리신학연구소 이사 조욱종 신부가 각 종교를 대표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광서 교수는 "선 · 포교의 자유는 타인의 종교인권을 존중함에 있어 누릴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개인의 종교 신념으로 인해 사회갈등을 일으킨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직자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공직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자신의 종교를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파괴 종교차별 종식 범불교대책위' 기획홍보팀도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교차별 금지법 입법 여론 조성 및 사이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불교인권위, 대불련, 환경연대, 재가연대, 보리방송모니터회, 포교사단 등 불교계 관계자 20여 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남진 사무처장은 "한기총 등 개신교 단체들이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막기 위한 금지법을 개인의 종교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오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DAUM 아고라에 토론방 개설하기 ▶블로그 뉴스, 까페 뉴스를 통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북한동포돕기 서명운동 90만명 돌파

정토회, 국내 12개 · 해외 14개 지역서 운동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가 진행하는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이 9월 11일 현재 90만명 서명을 돌파했다.

이번 90만 서명인 돌파는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8일 '굶주리는 북한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등 국내 12개 지역과 미국과 독일, 필리핀 등 해외 14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10월 5일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 전개될 예정이다.

정토회 이상환 사무총장은 "9월내 100만 서명운동이 달성 예정이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인도주의적 대북식량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정부 종교편향" 지적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종교 편향적이라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59.3%(매우 공감 38.4%+대체로 공감 21.9%)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30.1%)'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는 개신교 신자(41.6%<47.6%)의 경우 '종교 편향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불자(49.7%>35.4%)와 무교(62.2%>29.7%), 천주교(57.2%>32.5%) 신자는 '종교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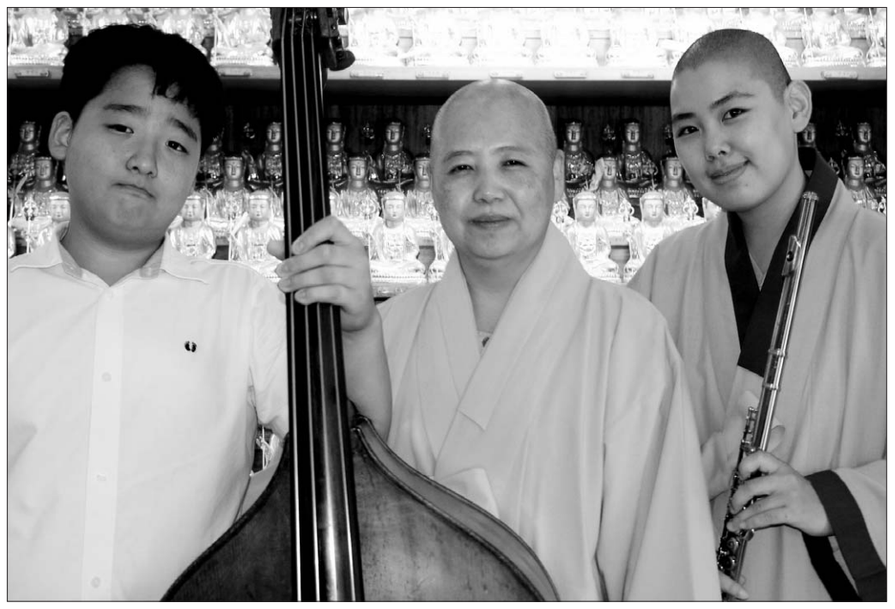


작은 절에서 큰 음악가 나왔다

서울 신림동 정혜사의 두 '음악 영재' 이야기

"나에겐 소중한 자식과 같거늘 안락의 성으로 함께함이 그토록 어려울까. 누가 기르고 보호해 이들을 뭇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할까." <보성론> '일체중생유여래장품' 반야바라밀의 대비행이다. 자식과 같이 애지중지한 연민의 대상이 있어 범부의 대지로 되돌아와 보현행을 조복함에 대한 비유다.

실제 방편력으로 정진을 발하고 견고한 마음을 일으켜 깨달은 바 몸소 실천으로 회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신림동 해돋이 길을 따라 주택이 밀집한 곳에 정갈하게 자리한 정혜사가 바로 그곳. 성보 스님(정혜사 주지)을 지휘자로 기원 스님(27 · 중앙대 예술대학원 음악과 전공 · 은석초등학교 출강)의 플루트 그리고 천진불 음악 신동 김형주(11 · 신림초 5)군의 콘트라베이스가 선사하는 작은 음악회의 막이 오른다.



정혜사 법당에서는 가끔 불보살님과 성보 스님을 청중으로 모시고 플루트와 콘트라베이스의 관현악2중주가 연주된다. 왼쪽부터 김형주군, 성보 스님, 기원 스님.

기원 스님 성대 염증 생겨 수술하고도 포기 안해

형주 '피나는 연습' 콩쿠르마다 1등…매일 108배

#"반듯하게 키웠다는 소리 들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 느낍니다"

기원 스님이 음악을 하겠다고 다짐한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다. 대학 입시에 매진해도 부족한 때였지만. "플룻을 하겠다고? 그것도 절집에서 서양 음악이라니!" 주지스님은 쉽게 용납하기 어려웠다. 일반 가정에서조차도 사치로 인식돼온 것이 예술인데다 서양음악의 클래식이란 장르가 기독교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넉넉하지 않은 절집에 시주 받은 돈으로 악기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주위의 염려와 따가운 눈총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지휘자로 있으면서 취미로 시작한 것에서 욕심이 났어요." 기원 스님과 플루트의 인연은 음악 선생님을 통해 점화됐다. "사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피아노학원에서 플루트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무척 부러웠죠." 방과 후 수업으로 지도받기 시작하면서 주지스님을 조르고 졸라 기어이 가장 저렴한 20만 원짜리 플루트를 선물 받았다. "악기 자체가 여성스럽고 부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악기를 다룰수록 신이 났고 플루트를 전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한 달에 5만 원하는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1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을 싸구려 악기로 연습하다 보니 고장나기가 다반사였다. 3류 대학이라도 좋으니 플루트로 대학에 가겠노라 다짐했고 성대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하고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시절을 회상하는 내내 두 스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치열한 노력 끝에 경원대 음대에 당당히 합격한 스님은 졸업 연주회를 훌륭히 마치고 성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기원이란 법명을 받았다.

#"돈으로 음악하지 마라. 승부는 실력이다"

어린 형주를 업어 키운 이가 기원 스님이다. 스님은 한 시도 플루트를 손에서 땐 적 없었고 형주에겐 그 연주가 자장가였다.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자란 형주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저음 악기 콘트라베이스를 만지며 "이 악기가 마음에 들어 너무 배우고 싶다"며 울고 때를 쓰기 시작했다. 악기가 크고 현이 굵어서 어린 아이가 과연 다룰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새살이 수백 번 돋도록 열정은 식지 않았다.

처음부터 어른용으로 시작했지만 초등부 콘트라베이스콩쿠르에서 수상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예선에서 만점을 받고도 본선에서 대상을 놓친 날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형주는 그 후 단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다. 한국음악협회전국콩쿠르에서 수상 소감을 부탁하자 형주는 말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당시 마스터클래스에서 형주를 교육했던 마이클 울프 교수(독일 베를린 음대)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어린 음악가다. 앞으로 크게 성장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형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영재양성 예비학교 학생으로 선발돼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고 있다.

형주도 또래 아이들과 같은 고민을 한다. '음악이 좋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일상이 힘들다.' 내성적인 성격인 11살 형주가 어느 날 일기장에 담은 독백이다. 형주는 오늘도 자만심을 다스리는 108배를 올리며 굳은 의지를 이어간다.

#"기도와 참선만이 수행의 다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키웠노라고 자부합니다. 내 분신과 같이 돌봤어요." 주지스님이 기원 스님께 그랬듯 형주를 향한 애정은 진심 아닌 적이 없었다. 억지로 교육시킨 바 없이 전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맡겼다.

조계종립 은석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유일한 스님으로 재직하면서 어렵게 배운 플루트를 인재양성에 회향하는 보람을 느낀다. 또한 대학원에서 작곡학을 전공중인 현재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를 작곡하고 싶다"는 소중한 포부를 밝힌다.

주지스님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두 음악가들이 미래의 부처이며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음악을 공부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작은 절, 넉넉하지 않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성장하는 두 음악 영재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해 마지않는다. (02)888-5113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0〉 '참사람(無位眞人)'의 주인공 서옹 대선사

만암 스님은 서옹 대선사에게 법을 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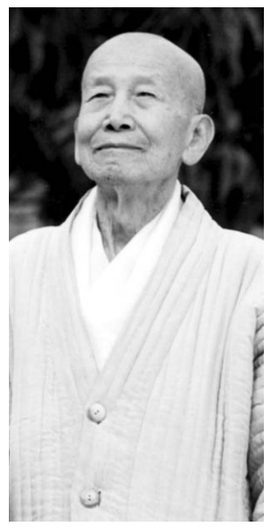
"백양산의 사나운 범이/ 한 밤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니/ 가을 하늘에 밝은 달빛이/ 서릿발처럼 차갑다."

하시고, 종성 스님은 스님의 진영에,

"늠름한 눈 빛 신검처럼 휘두르니/ 부처도 맘대로 죽이는 무위진인이로다/ 한 번 노할 때 사마외도가 소탕되니/ 천년고목에 백화가 새롭도다."

고 썼다. 참으로 서옹 대선사에 꼭 알맞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처음 스님을 뵌 것은 1962년 동국대학교 선원장으로 취임하시기 전 돈암동 신지정 정광학교 교장선생님 댁에서였다. 장이 파열돼 홍내과에서 수술했는데, 마취주사를 맞지 않고 그냥 생살을 찢어 병원장님이 도리어 땀을 뻘뻘 흘리며 수술했다고 했다.



서를 탐독하다가 김대은 스님의 소개로 백양사 송만암 스님을 친견, 출가했다. 속명은 상순이고, 속성은 이씨인데 10세에 진실행 보살님은 자손이 없는 외로운 불자였지만 시봉 하나를 데리고 동 · 서 · 남 · 북에서 오는 스님들을 인연에 따라 시봉했다. 그 분은 언제나 홀로 있을 때는 참선과 염불을 주로 하고, 오는 스님들께 법문을 많이 들어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 보살님으로부터 스님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듣고, 친히 뵙기를 원했으나 좀처럼 기회가 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동국대학교 선원장이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뵙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1912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7세에 부친을 잃고, 17세에 조부와 모친이 별세한 뒤 세상 무상을 느끼고 불교의 자랑이요, 민족의 긍지를 일깨워준 일대쾌사라 아니할 수 없다.

소개가 끝나자 큰스님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할(喝)' 하신 뒤 말씀하셨다.

"선은 직절근원에 의한 절대주체의 자각이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마음, 신이나 부처에 얽매이면 그 자리서 죽고 만다. 르네상스 이후 기독교신학이 극복되고 인문주의가 싹 트면서 대자연을 목적론적 면에서 해석하지 않고,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인류의 문화는 자연정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 자연을 황폐시키는 욕망사회가 되었다. 현대의 욕망주의는 배금주의요, 식욕주의요, 성욕주의니 이를 해결하려면 선을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어 게송을 읊기를)

"입소개진(立所皆眞;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하고)하고 수처현청(隨處顯淸: 곳곳마다 맑음을 드러내면)하면 오역문뢰(五逆聞雷; 오역죄인이 우뢰를 듣더라도)라도 수처작주(隨處作主; 처한 곳마다 주인이 되리라)하리라."

그 후 상도동 백운사에 가서도 그와 비슷한 법문을 듣고 장성 백양사에 가서도 그와 같은 법문을 들었다. 스님께서 쓰신 <임제록>은 우리 불교계에 던진 최초의 종문서이고, 다음 '참사람 결사'를 하시며 제창하신 <벽암록>은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번은 참고해야 할 기본 자료이다.

"상왕빈신 사자후여/ 벽락불속에서 정과 사가 가려지네/ 맑은 바람 늠름히 하늘 땅 스치니/ 백악산 거꾸로 타고 중관문을 벗어났다네."

이것이 스님의 오도송이다.

선은 직절근원에 의한 절대주체의 자각이다

"현대의 욕망주의 해결하려면 선 해야해"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전수 – 치유
- 신침전문,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통항아리 불부항전문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 H.P. 010-3056-3315
서울지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30
트럼프월드 102동 510호 ☎ 02)796-7579
본부장 – 현오 합장 010-3056-3315
지사장 – 혜진 합장 010-7508-3315
실 장 – 혜성 합장 010-7509-3315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현장속으로



2008 벽송선회 '문없는 문' 열었다

이론과 실참병행, "바로 알고 바로 정진하자"

벽송 두 그루 위에 산새가 우는 고즈넉한 지리산 한 자락 사찰에서 계송이 들려온다. 파르라니 머리를 깍은 백여 명의 비구 · 비구니스님들이 한데 모여 있다. 수행자에게 결제 · 해제가 따로 없기에 하안거가 끝난 초가을에도 낮에는 이론을, 밤에는 실참을 한다.

간화선 근본도량 지리산 벽송사에서 9월 6일 벽송선회(선수 월암)가 입재식을 시작으로 3 · 7일간 수행의 결사에 돌입했다. 2006년에 이어 제2회를 맞는 이번 벽송선회는 비구 34명, 비구니 56명 등 모두 90명의 납자가 9월 6 ~ 26일 21일간 산철결제에 들어갔다. 이들은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전에는 이론을,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4시간씩 실참수행하게 된다.

"본래면목 무일물(本來面目 無一物).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입재식에서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은 스님들을 격려하고자 '본래무일물' 화두를 제시하는 게송을 읊고, 법문을 시작했다. 설정 스님은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조건 정진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로 알고 바로 정진을 해야 한다"며 "많은 수선납자들이 잘못된 선수행으로 선병에 걸려 고생하고 방황한다. 지리산 벽송사에 모인 납자들은 선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수행 정진해 선사들의 뜻을 이어받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결제는 한국전통수행방식 선교쌍수 가풍으로 진행된다. 월암 스님은 "벽송선회 이전에 고려 담선법회, 일제강점기 용성 조사 만일참선결사, 성철 스님 백일법문, 가깝게는 서옹 큰스님의 참사람결사도 선교겸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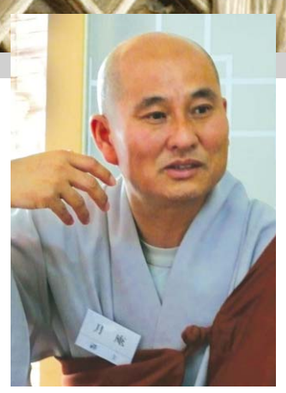
선회에서는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의 '간화선 수행의 바른 길', 고우 스님 '간화선 수행과 정견', 혜국 스님 '조사선- 최상승 수행', 영진 스님 '발심과 실참', 수불 스님 '간화선 수행과 신앙', 설우 스님 '선요', 지환 스님 '간화선 수행', 법산 스님 '한국 선종사' 특강 등이 열려 수선납자들이 이론을 다진 후 실참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전통강원에서는 이론 위주로, 선방에서는 실참 위주로 행해지는 현재 불교승려교육 현실에서 납자들이 모여 큰스님 강의와 토론으로 이론을 쌓고 다시 실참실수하는 선회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조실스님이 없는 사찰에서는 선담을 나눌 기회가 없기에 큰스님들과의 선담을 나누고자 법랍 30년부터 초심자까지 연령을 불문한 납자들이 모였다.

선회에 참가한 구미 금강사 해관 스님은 "첫 벽송선회에 이어 두 번째 벽송선회에도 참석했다. 선회는 선이론을 배우고, 스님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어 선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사건으로 전 불교계가 격분한 지금, 역설적으로 중생교화 이전에 수행을 올곧게하는 수행자 덕목 또한 불교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외부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심과 원력을 다해 선학을 연마하는 벽송선회에서 또다른 '호법'의 길이 비춰졌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 인터뷰

"선교겸수의 새 지평될 것"

"선의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실참실구함으로 명안종사가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은 "선수행은 이론과 실참 어느 것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벽송선회는 선교겸수의 새 지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벽송사는 벽송지엄 선사의 개창 후 부용영관을 거쳐, 청허휴정, 부휴선수 양대선맥이 전개된 곳이다. 두 선사 이후 108분에 이르는 조사스님이 탄생해 '108조사행화도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숭유억불 시대에도 강원과 선방이 함께 열려 강원학인과 실참납자를 길러냈다"고 설명했다.

신심과 원력을 다해 실참하는 수행도량답게 벽송사는 재가자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도량이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을 하면 현실에서 행복해져야 한다. '간화선은 행복선'을 주제로 10월 말 재가선회를 개최하겠다"며 "재가와 출가자가 함께하는 무차선회, 템플스테이 등으로 벽송사는 스님들만의 수행공간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도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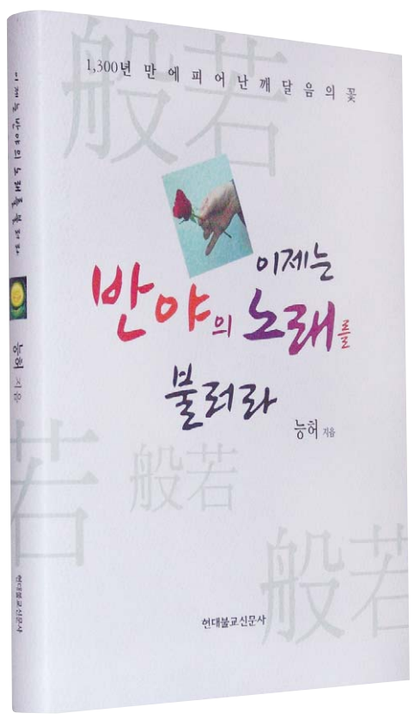
벽송사는 ?

벽송사는 조선 1520년(중종 15)에 벽송지엄 선사가 창건했다. 벽송지엄 선사는 간화선을 제창한 송나라 대혜 선사와 임제종을 대표한 원나라 고봉 화상의 종지종풍을 드날린 분으로 후학을 지도함에 있어 〈도서〉〈절요〉〈서장〉〈선요〉로써 간화참구하게 했다. 오늘날 한국불교전통강원의 사집교과목으로 〈도서〉〈절요〉〈서장〉〈선요〉가 채택된 것은 벽송산문 영향으로, 벽송사는 간화선 제1조정(祖庭) '한국 간화선 근본도량'의 의미를 갖는다.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일주문



법장 스님 3주기 추모다례 봉행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9월 7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인곡당 법장 대종사 3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27일 '희망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7일 오후 1시 장충공원에서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1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은평구립도서관, 주민서비스

은평구립도서관 관장 성운 스님은 9월 4~5일 은평주민서비스에 참가해 전통놀이 체험, 판화체험, 포토존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추본 '평화통일사진공모전'

조계종 민주화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9월 8~ 24일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통일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02)720-0531



법천사, '달마관심론' 법회산림

법천사 운문선원장 일수 스님은 9월 21일부터 6주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달마관심론> 법회산림을 연다. (02)745-6939



강삼모 교수 WHO'S WHO 등재

동국대 경제학과 강삼모 교수는 실질환율 고평가 분석법 등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WHO'S WHO 2009년도 판에 등재됐다.



미얀마불대위, 의류지원캠페인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 윤천수 공동위원장은 9월 11일 중앙신도회관에서 '제 2차 미얀마 현지 피해민을 위한 의류지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규행 前 문화일보 회장 별세

현대불교에 '달마 이야기' 연재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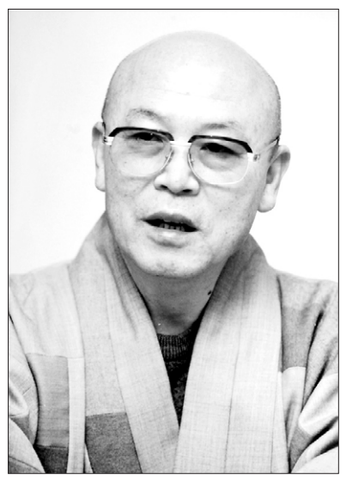
이규행 前 문화일보 회장이 9월 10일 오전 2시 1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1935년 충남 공주 출신인 고인은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1960년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동아일보,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로 필명을 떨쳤다. 이후 경향신문 주필을 거쳐 한국경제신문 사장, 문화일보 창간 사장 및 회장, 중앙일보 고문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현대불교신문에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를 연재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 포교역량 강화의 힘 '태권도'에 있어"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 창립한 혜안 스님



"태권도에 담긴 불교적 요소를 활용해 불교포교 앞장서겠습니다."

9월 5일 일산 한국국제전시장 KINTEX에서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을 창립한 혜안 스님(대한불교무량종 종정 · **사진**)은 "생활불교가 자리잡는데 불교태권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혜안 스님은 이어 종교편향 등 시국상황에 대해 "그동안 불교계 내에서 태권도에 대해 무관심 했다. 작금의 종교편향 사태도 근본원인은 우리 생활 속에 불교 역량이 약화되어 일어났다고 본다"며 불교 포교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혜안 스님은 "고구려 벽화나 석굴암 금강역사처럼 태권도의 원류에는 불교선무술이 자리하고 있다. 태권도 기원인 신라시대 화랑도도 원광법사의 세속오계가 근본사상으로 불교사상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며 "현대 태권도에도 금강품세 등 곳곳에서 불교요소가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불자의 사명"이라 강조했다. 국기원 공식자료에 의하면 태권도는 고구려 무용총 맨손 무예와 신라 세속오계를 철학바탕으로 한 화랑도의 호신무예, 고려시대 수박도 등에 기원한다.

혜안 스님은 "세계불교태권도연맹 창립을 시작으로 포교차원에서 태권도의 스포츠적인 면보다 태권도 안의 도와 선 사상을 알리겠다"며 "베이징 올림픽 전체급 석권으로 태권도에 대한 국민 자긍심이 고취된 지금 불교태권도시범단도 창단해 포교활동에 주력하겠다. 전국 불교태권도 행사뿐만 아니라, 해외무술교류를 통한 무술포교에도 앞장 설 것"이라며, 불교태권도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세계불교태권도연맹은 전국 200여 사범, 관장으로 구성돼 10월 3일 고양 덕양 어울림 누리에서 창립기념 '2008 국제 왕중왕 격파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055)883-7771

노덕현 기자

"승가중심의 심도 있는 불교학 연구 목표"

초대 불교학연구원장 태원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를 집대성하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009년 개교 30주년을 앞두고 중앙승가대(총장 종범)가 불교학연구원을 열고 본격적인 승가 중심 불교학 연구의 막을 올렸다. 초대 불교학연구원 원장 태원 스님(**사진**)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뤄나가겠다"며, 교직원, 동문 등 사부대중의 협조를 당부했다.

태원 스님은 정토학 전공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해인사 강원, 동국대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 불교대에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9월 8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원 개원식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비롯해, 도서관장 정인 스님, 총무처장 월우 스님, 교학처장 보각 스님 등 교내외 인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워 불교학연구원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중앙승가대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불교학 및 불교와 관련된 제반 학문분야의 연구사업 진행과 대중화를 목적으로 개원한 불교학연구원은 ▲산하 연구소의 각종 연구사업 지원 ▲정보화 등을 특성으로 한 학제간 연구 ▲연구서 및 학술논문집 간행과 보급 ▲학회 설립 및 운영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태원 스님은 "승가 중심의 심도 있는 불교학 연구로 불교학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에 이바지 할 주제를 선정해 봄 · 가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수준의 학술지를 발간해 교수 및 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 설명했다.

스님은 "연구부장 최강남 교수를 비롯해 불교학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위원들과 협의해 불교계 현안을 불교학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여래장 · 간화선 · 정토사상 등 불교학 분야와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문제 등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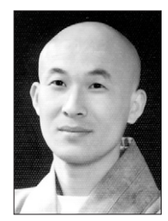
태원 스님은 "불교학연구원 산하 불교사학 연구소, 불전국역연구소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불교복지연구소 등이 있다. 각기 다른 분야별 특징을 살려 독보적인 연구업적을 이루도록 독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불교학연구원의 첫 학술세미나는 2009년 봄 열릴 예정이다.(031)980-7784

조동섭 기자

"노숙인 장애인 복지 힘쓸 것"

서울시복지상 수상 지거 스님



"사회복지의 변화 추세 맞춰 노숙인과 장애인 복지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9월 5일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08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시복지상을 수상한 지거 스님(**사진**)은 "노숙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사회복지실무 경험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사회소외계층 대상 복지뿐만 아니라 생태와 생활문화에서도 불교가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행으로 빛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상운영조례'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서울특별시가 수여하는 복지상은 불교계 스님으로 최초 수상이다. 지거 스님은 1998년부터 노숙인재활시설 보현의 집을 운영하여 노숙인 복지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 왔다. 현재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협회회장으로, 노숙인 복지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지거 스님은 이어 "사회복지에 늦은 출발을 했지만 많은 이의 도움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다. 초심으로 돌아사 사회복지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02)3667-0870

노덕현 기자

명성 스님 태국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식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 스님은 9월 7일 운문사에서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라자위달라야대학교 총장 담마코사잔 스님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손법천 대구 지사장

군종교구 국군 준부사관 불자수련회 성료



군종특별교구(특별교구장 일면)는 9월 3일 ~ 5일 인제 백담사에서 국군 준부사관 불자 수련회를 성료했다. 수련회에는 육해공군 준부사관, 군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비명상, 차훈명상을 체험하고, 군불교 발전을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복지재단 '꿈나무 운동화 나누기'



천태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은 9월 8일 중랑구청에 아동운동화 1000여 결레를 한가위 선물로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안희수 삼룡사 신도회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천태종 복지재단봉사단, 새싹어린이 학부모 봉사단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02)873-3405 노덕현 기자

승가원 '보름달 보다 아름다운 이웃'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은 9월 6일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행사 '보름달 보다 아름다운이웃'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아동 80명과 직원, 미래에셋 자원봉사자 50명 등이 참가했다. (02)928-0750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박람회 다채로운 불교용품 선보여



(주)제이컨벤션과 불교신문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2008한국불교박람회'를 개최했다. 가연숙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지도사 강좌 안내
(일반인반 · 스님반)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전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상기병,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에 활용/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자녀교육에 활용/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이웃에 건강 복 짓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강좌 구분
(1)스님반 (2박2일 : 금요일 오후 도착, 토요일 9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2)일반인반(1박2일 : 토요일 오후 2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나. 강좌 내용
(1)공통(스님반, 일반인반)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 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신기한 비장 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및 실습 ◆ 종합,질의 및 답변,지도자 수영증 수여
(2)스님반 추가
◆ 수치의 비밀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각반 선착순 12명)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1)일반인반 : 2008. 9.27(토) ~ 9.28(일) 25만원
(2)스 님 반 : 2008. 10.4(토) ~ 10.5(일) 34만원
[10월 3일 금요일 오후 도착]
※각 반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다. 장소 : 충남교육장
※ 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미군 '군법사 승가'에 서산대사 '격문' 실어

해외불교칼럼

다음은 앞서 말한 미 합중국군의 <군법사 승가>에 영역으로 실린 서산대사 휴정의 조선팔도승병 총궐기 격문이다. 당시 73세이시던 거룩하신 큰스님의 먼발치에 엎드려 감히 옮겨 엮었다.

아,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극악무도한 적도(賊徒)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 그 독기(毒氣)가 조선 천지에 가득한지라. 삼경(三京)이 함락되고 우리 선조들이 누천년 이룬 바가 산산이 무너지도다. 저 바다의 악귀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랴? 살기가 서린 저 악귀들은 독사 금수와 다를 바 없도다.

조선의 승병들이여!

깃발을 치켜들고 일어서시오!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얻어 받지 아니하였소?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의(義)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바, 또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바가 곧 보살이 할 바요 나아갈 길이라. 일찍이 원광법사께서 임전무퇴(臨戰無退)라 이르시니, 무릇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함은 불법(佛法)을 따른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받들어 온 전통이오.

조선의 승병들이여!

우리 백성이 살아남을지 아니할지, 우리 조국이 남아있을지 아니할지, 그 모두가 이 싸움에 달려 있소.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과 백성을 지키는 일은 단군의 피가 혈관에 흐르는 한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바라. 이 땅의 나무와 풀마저 일어나 싸워야 할 터, 하물며 붉은 피를 지닌 이 땅의 백성이야 새삼 무슨 말을 하리오? 또한 세상을 구하는 제세(濟世)가 바로 불법(佛法)이 아니리까? 백성들이 적도의 창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조국을 붉게 적시오. 조국이 사라지고 백성이 괴로워할진대, 그대들이 살아남는 바가 곧 조국과 백성에 대한 배신(背信)이 아니리까?

조선팔도의 승병들이여!

나이가 들고 쇠약한 승려는 사찰을 지키며 구국제민(救國濟民)을 기원하게 하시오! 몸이 성한 그대들은 무기를 들어 적도를 물리치고 조국을 구하시오! 모든 보살의 가피력으로 무장하시오! 적도를 쓰러뜨릴 보검(寶劍)을 손아귀에 움켜쥐시오! 팔부신장(八部神將)의 번뜩이는 천둥번개를 후려치며 나아가시오! 참변에 울부짖는 백성들이 분하고 원통하오. 촌각(寸刻)도 머뭇거릴 수 없소. 지체 없이 일어나 불구대천의 원수를 토벌 격멸하시오!

조선의 승병들이여!

조정대신들은 당쟁 속을 헤매고 군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도주하니 이 아니 슬프오? 또한 외국의 세력을 불러들여 살아날 길을 꾀한다 하니, 우리 민족의 치욕이 아니리까? 이제 우리 승병만이 조국을 구하고 백성을 살릴 수 있소. 그대들이 밤낮 없이 수행 정진하는바가 생사를 초월하자 함이오, 또한 그대들에겐 거둬야 할 식솔이 없으니 돌아볼 바 무엇이오? 모든 불보살(佛菩薩)이 그대들의 나아갈 길을 보살피고 거들지니, 분연히 일어서시오! 용맹의연하게 전장으로 나아가 적도를 궤멸하시오! 적도의 창검포화가 두려울 바 무엇이오? 전투가 없이는 승리도 없소. 죽음이 없이는 삶도 없소.

조선팔도의 승병들이여! 일어서시오! 순안의 법흥사로 집결하시오! 나 휴정은 거기서 그대들을 기다릴 터이오. 우리 일치단결하여 결전의 싸움터로 용약 진군합시다!

이 격문을 읽고 들으며 비분강개(悲憤慷慨)의 통곡을 하지 않은 승병이 없었다 한다. 미 합중국군의 <군법사 승가>는 이 격문의 작성일자를 1592년 6월15일로 환산하여 게재했다. 그로부터 400여년 후인 2008년 1월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당선자는 서산대사의 사자후(獅子吼)를 인용한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는 국가지도자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또 그 자리에서 그는 '하심(下心)'을 강조하고 '상생(相生)과 화합(化合)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최대 화두'라 밝힌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진심어린 천명(闡明)이다. 그런데 언행일치(言行一致)란 때로는 '참 나'의 본디 올곧은 뜻과 달리 힘겨워지기도 한다. 왜인가? 나는 나와 맺어진 일체중생(一切衆生)과 삼라만상(森羅萬象), 곧 끊고 저버릴 수 없는 온갖 '인연'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서 '참 나'를 놓치지 않는 바가 그토록 수고로운 가시밭길 고행이리라. (계속)

성휴 스님

참조 : The Warrior Buddhists of Korea (Chaps' Dharma Talk), People Mattered in Korea: Samyeong-daesa, 기타

"Oh, my God! Your devout dog…"

아참! 독실하신 멍멍님께선…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A farmer had lived only with a dog for a long time. When the dog died, he went to the church, "My dog is dead. Could you arrange a funeral service for the poor creature?" The man there was pretty cold. "I wish I could, but our church doesn't do it for animal." But he gave him a kind advice," There's a pagan church or joss house (American Buddhist temple dubbed earlier) up the hill. Maybe they'll do something for their fellow animal." The farmer was so happy, "Oh, thank you! By the way, do you think $ 50,000 is enough to donate for the service?" He suddenly grasped the farmer's hands in tears, "Oh, my God! Your devout dog was neither pagan nor heretic! Why didn't you tell me? I almost forgot!"

어느 농부가 오랫동안 단둘이 살던 개가 죽자 교회를 찾았다. "저, 우리 멍멍이가 죽었는데요.. 여기서 그 불쌍한 녀석의 장례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곳 사람이 툭 튕겼다. "뭐, 그러고야 싶죠, 근데 우리 교회에선 짐승 장례식은 안 해요."그리곤 친절하게 조언해줬다. "저기 언덕에 이단교회인지 분향소(미국불교사찰의 초기속칭)인지 하나 있어요. 암튼 같은 짐승들끼리니까 뭔가 해줄 테죠." 농부는 참 기뻤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멍멍이 장례식의 대가로 제가 거기다 5만 달러를 기부하면 혹시 안 부족할까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농부의 두 손을 와락 붙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참! 그 독실하신 멍멍님께선 이단이나 이교도가 아니셨죠? 에이, 왜 진작 그 말씀을 안 하셨나요? 제가 깜빡할 뻔 했잖아요?"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불교 심리요법으로 안정

英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



9월 3일자 '빅 뉴스'는 약물중독으로 재활원 요양, 우울증, 거식증 등 정서불안장애를 겪어온 영국의 톱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사진)가 불교적 심리이완요법으로 안정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티나 터너 등 음악계 인사들의 영향으로 최근 불문에 들어섰다.

한편, 영국의 BBC라디오는 연중 불교명상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적 심리치료는 국립건강보험국의 의료혜택항목 중 하나다. 출처: 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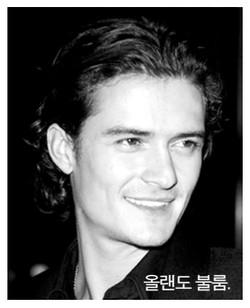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랜도 볼룸 ❶

불교수행 위해 영화도 중단

"불교는 내 삶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게 해" 서구 지식 사회에 '눈 뜬 믿음'으로 자리잡아

지난해 4월 미국의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 와이즈'는 영국 출신의 할리우드 스타인 올랜도 블룸이 당분간 영화계를 떠난다는 보도로 그의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자신이 밝힌 이유다.


올랜도 볼룸.

"지금 나는 마치 길길이 날뛰는 목마에 올라탄 듯하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잠시 영화를 거두고 불교수행에 더욱 정진하려 한다."

대 히트 영화시리즈인 '반지의 제왕'과 '카리브 해의 해적', 그리고 대작 '트로이'와 '킹덤 오브 헤븐' 등으로 인기절정에 오른 그는 '미러'지와 인터뷰에선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이들은 불교가 나무 그늘 아래서 배꼽 언저리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것인 양 잘못 알고 있다. 18살 때부터 불교를 가슴에 껴안고 살아온 나는 불교를 안다. 불교는 나의 삶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또 나의 삶이 어찌 되어가는 지를 늘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새로운 에너지는 보다 정갈하고 관대한 품격을 지닌 '나'를 이루게 한다." 미러 지는 '제발 나를 유명인사의 대열에서 빼주세요!' 란 자못 충격적인 타이틀로 그의 현재 심경을 전했다. "지금 나는 전화통화를 포함한 대인관계 등 모든 일에서 잠시 멀리 떠나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다." 그 기사는 올랜도 블룸의 '당분간 휴식'이 꽤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불교가 서구사회에 한 방울의 다르마의 이슬로 떨어진 이래, 한 가지 의문이 내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도대체 불교가 무엇이기에 가정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인격이든 갖출 것 다 갖춘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그처럼 진지하게 파고드는가?' 이는 불교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통상적 호기심이나 의구심일 것이다. 어떻든 그 의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사회를 추스르고 이끌어가는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 즉 여론선도층(opinion leaders)의 믿음은 '눈감고 끌려 다니는 믿음'에 익숙한 서구인들에겐 일대 충격이자 모험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유럽전역의 대학가까지 퍼져간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종합예술제국이라 할 할리우드의 각종 전달매체를 타고 거의 동시간대에 전 세계인과 만난다. 대학가보다 훨씬 강력하고 신속한 전법 파급력을 지닌 곳이 할리우드다. 감수성, 창의성과 모험정신, 그리고 자기의지와 돌파력이 남다른 할리우드의 불자 스타들은 알게 모르게 동시다발형 전법공덕을 쌓아간다. 심지어 앞서 말한 올랜도 블룸의 신상발언 하나가 또 다른 형태의 전법이 된다. 그는 '모든 일에서 떠나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즉, 그는 쉴터를 찾고 있으며 불교가 곧 자신의 쉴터임을 밝혔다. 불교는 가본 적도 없는 천당과 지옥을 번갈아 내밀며 가뜩이나 지친 영혼을 희롱하지 않는다. 불교는 고운 이웃들을 악마와 적으로 만들지 않으며, 착한 도반들을 살벌한 집단광기로 내몰지도 않는다. 불교는 쉬어가는 곳이다. 불교는 피곤한 심신과 영혼이 기대어 쉬며 '나'를 새로이 바라보게 하는 휴식처(shelter)이자 피난처(refuge)다. 불가에선 이처럼 나의 쉴터로 찾아드는 바를 귀의(歸依)라 한다. 서구인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가장 큰 까닭이 뭘까? 그에 대한 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쉬고 싶기 때문이다. (계속)

성휴 스님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봉,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불교의 孝, 가족초월 인간해방 지향

생사의례문화비교연구회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9월 5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국제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제한 김호성 교수(왼쪽)와 마쓰오 겐지 교수.

유교 · 힌두교의 효 개념 가부장제에 뿌리
일본 불교의 생사관·장례문화 '둔승'이 주도

2008년 4월 하남시 제2화장장 설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종교계의 장례문화 주도와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불교계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를 포교로 위장해 일본 장례불교를 벤치마킹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생사의례(供養) 문화비교 연구회가 동국대에서 국제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한일 불교학 연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5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연구발표회에는 김호성 교수(동국대), 마쓰오 겐지 교수(日, 야마가카 대학), 이성운 사장(정우서적)이 발표했다.

 # 일본 장례불교 성립 배경

마쓰오 겐지 교수는 '일본 중세에 있어 죽음과 불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쓰오 교수는 "일본 사람들이 승려를 만날 기회는 장례식과 기일(忌日) 법회 등에 한정되며, 승려는 경내 묘지 관리자로 인식된다"며, 장례불교라는 말에는 불교인의 그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 · 야유가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장례불교가 발전한 배경에 대해 마쓰오 겐지 교수는 "죽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둔세승들로 인해 일본에 불교적 생사관이 널리 유행했다"고 진단했다.

관승(官僧)은 천황의 허가를 얻어 득도한 승려로 동대사 · 관세음사 · 연력사 등 세 계단(戒壇)에서 수계한 자를 말한다. 반면에 둔세승(遁世僧)은 천황과 무관한 입문의례 시스템을 가진 관승 외의 승려를 일컫는다.

마쓰오 겐지 교수는 "관승과 둔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례 종사 여부였다"며, "일본에서 승려가 장례의식을 담당하게 된 것은 2차대전 이후"라 소개했다.

둔세승들이 장례를 담당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마쓰오 교수는 사예(死穢)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예는 사체를 만지거나 장례, 개장 등을 해서 생기는 더러움을 말한다. 장례 등에 종사한 사람은 사예를 이유로 30일간 법회 등에 참여를 삼가야했다.

마쓰오 겐지 교수는 사예의 예로 "임종이 임박한 승려나 혈연이 없는 이들을 절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길가나 강가에 버리기도 했다"며, "관인(官人)이나 관승에게는 사예가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반면에 둔세승들은 장례 등 죽음의 더러움에서 자유로웠다. 마츠오 교수는 "사예의 제약이 없던 둔세승들이 자연스레 장례에 관여했고, 자연스럽게 둔세승 사찰에는 묘지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마츠오 교수는 "1220년대 사체 유기가 크게 감소했다"며, "유기된 사체까지도 장례한 둔세승 교단 성립과 경내 묘지 조성이 줄이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마츠오 겐지 교수는 "사예를 꺼리지 않은 선승 · 율승 · 염불승 · 일련종 문하승들이 장례 등에 조직적으로 참여해 오늘날 장례불교를 이뤘다"고 말했다.

#불교·힌두교·유교 '효' 비교

김호성 교수는 주제발표 '불교화된 효 담론의 해체'에서 유교에서 주장하는 "불교에는 효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불교와 힌두교, 유교의 효개념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로서의 효에 대한 가르침을 '가족윤리로서의 효'라 규정했다.

"중국 유교의 효는 가족윤리로서 효에서 출발했지만 가족윤리라는 한계에 머물지 않았다." 김호성 교수는 "중국 유교의 효는 충(忠)으로 연장됐고, 천하를 질서 짓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중심주의의 별애설과 연결됐다"고 정리했다.

김호성 교수는 인도 불교의 효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인도 힌두교의 효를 <마하바라타>를 통해 정리했다. 김 교수는 "인도 힌두교도 효를 강조했다"며, 스스로 독신의 맹세를 세우고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재혼을 성사시킨 비쉬마의 불혼(不婚) 이야기, 판두 아들들이 취한 일처오부(一妻五父) 관계서 드러난 어머니에 대한 순명(順命) 이야기를 소개했다.

다만 인도 힌두교에서는 효보다 카스트질서가 중시됐다. 김호성 교수는 "<바가바드기타>에 나온 아르쥬나의 회의와 크리쉬나의 응답에 따르면 계급의 의무가 가족의 법도보다 우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인도 불교의 효는 인도힌두교와 다르고 중국 유교와는 더 크게 다르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 유교의 효는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莫大於孝)'는 위상을 갖지만 인도 불교의 효는 아니다. 인도 불교에서 효는 동체대비 의미로 가족중심주의를 떠나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힌두교와 중국 유교의 효는 가부장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불교의 효는 가부장제 속에서 논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불교는 가부장제 등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전통"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성운 사장(정우서적)은 '한국불교의 시식(施食)의 인식과 변형 고찰'을 통해 한국불교의 시식의를 개괄했다. 이 사장은 "가변적인 의식이 최대한 경전과 사리에 계합해야 한다"며, "한문 중심의 시식문을 한글로 번역하자"고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국보급 통일신라 삼세불 공개

원광대 양은용 대학원장 '문화사학' 29집서 발표


원광대 양은용 대학원장이 연구발표한 통일신라 '개원 3년명 석조삼세불입상'.

신라시대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미소로 머금은 국보급 통일신라시대 삼세불이 공개됐다.

삼세불의 정식 명칭은 '개원3년명 석조삼세불입상(石造三世佛立像)'. '대당 개원 3년(大唐開元三年 · 715년)'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소장자 정모씨 부친이 1965년 경주시 소재 밭을 일구던 중 수습한 것을 장롱에 보관하다 공개한 삼세불은 높이 42.6㎝×넓이29.7㎝×깊이 11.7㎝ 크기다.

여의주를 든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한 본존불(현세불)을 중앙으로 좌우 협시불은 합장인(合掌印)을 하고 있다. 삼세불 모두 하나의 연뿌리에서 올라온 세 개의 연꽃위에 나란히 서있는 일경삼존(一莖三尊) 양식을 갖췄다.

불상에는 '대당 개원 3년 4월 5일 유거는 아버지를 위해 삼세불 일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유거가 임종을 맞은 부친을 위해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신라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불상으로 학술적 ·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며 국보급으로도 손색없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원광대 대학원 양은용 원장은 최근 <문화사학> 제29집에 '통일신라 개원삼년명 석조일경삼존삼세불입상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통해 삼세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직지사 대웅전 · 봉암사 극락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월 3일, 김천 직지사 대웅전(경북 유형문화재 제215호)과 문경 봉암사 극락전(경북 유형문화재 제255호)을 각각 보물 제1576호, 제1574호로 지정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49년(인조 27년) 중창했다. 현재의 대웅전은 1735년(영조 11년) 중건된 것이다. 대웅전은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고, 가구식 기단을 갖췄다. 용머리조각과 호형의 부재를 사용한 계단 우석의 형태와 결구법이 특이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직지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직후 재건된 불교전각들의 경향을 보이며, 가구의 구성 및 부재의 표현기법이 조선후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어 보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지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직지사 대웅전 현판을 친일파 이완용이 작성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현판과 별도로 건물 자체의 역사적 · 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돼 보물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경 봉암사 극락전은 신라 경순왕이 피난시 원당으로 사용한 건물로 전한다. 학계에서는 형태나 위치로 보아 조선 중 · 후기에 세워진 왕실 원당일 가능성이 높고, 기단과 초석은 고려조의 것으로 추정한다. 독특한 외관과 건축수법 및 단청 등에서 조선 중 · 후기 건축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등의 가치가 인정돼 보물로 지정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9월 19일 간화선 세미나 개최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간화선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해 여는 제7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가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간화선 수행에서 화두의 기능과 병통의 극복'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박재현 연구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와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각각 '화두의 기능과 역할'과 '화두 수행에서 발생하는 병통과 극복'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효령대군 재조명
선리연구원 월례발표회

개신교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은 '숭개폐불'이라 불리며, 조선시대 숭유억불에 비교되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초기 효령대군이 '생불(生佛)'로 추앙받던 15세기 대표적인 호불자(好佛者)였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9월 5일 안국동 선학원에서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인용민 연구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은 '효령대군 이보의 불사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인 연구원은 "조선초기는 숭유억불을 표방했지만 왕의 성향에 따라 신불(信佛)과 억불(抑佛)이 혼재됐었다"고 말했다. 인용민 연구원은 "생존시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7명의 왕을 모셨던 효령대군은 종실의 수장으로 조상과 친족을 위해 불사를 행했다"고 설명했다.

인 연구원은 원각사 건립과 간경도감 참여 등을 예로 "세종의 친불적인 성향과, 세조의 호불정책 등에 효령대군이 왕과 불교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동양불교조계종 창종취지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저희가 고귀하고 걸림없이 살다가신 원효선사의 덕행을 기리고 우리 후학들의 이정표로 삼고저 뜻있는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동양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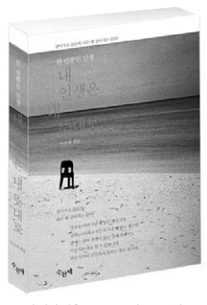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고 진여와 생멸을 회통시키신 원효선사의 남기신 뜻은 후학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화쟁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날 정체성이 흐려지고 교계 내의 자종타우월주의의 경향으로 부처님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가 왜곡되어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동양불교조계종에서는 출세간을 아우르는 화회(和會)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창종(創宗)의 뜻을 내외에 알리는 바입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라옵니다.

❀ 창종예정일 佛記 2552年 10月 중
❀ 사무처 : (055) 333-7678
(010-5521-7677)

佛記 2552年 6月 20日

창종준비위원 覺性외 10人 합장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수선재 엮음 / 236쪽 / 값 10,800원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살아지는 걸까?

【 내 인생은 내 뜻대로 】

명상학교 수선재의 스승인 문화영 님이 들려주는 "쉬운 깨달음" 이야기.
깨달음은 쉽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제껏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깨달음'이란 세속에 찌들어 사는 우리네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심심산중에서 면벽 수도하는 스님에게나 해당되는 용어라는 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 하지만 도심 속 명상학교를 표방하는 수선재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용어가 "밥 먹었니?"라는 말처럼 친근한 용어이다. 회사원, 교사, 주부, 자영업자 등 보통 사람들이 "나도 한번 깨달아 볼까" 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명상으로 건강, 마음의 편안함, 심력(心力, 마음의 힘)을 길러서 작은 일부터 아주 큰일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⑩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의 도량 상원사(上院寺)

붉게 물든 도량에 한번 웃음 하늘 한번 보고 웃음







마당엔 동자스님이, 문수전엔 문수동자가….

오대산 능선은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얻은 깊은 하늘 속에 담겨 있고,
아쉬운 듯 녹엽을 놓지 않는 전나무 숲에는 문수동자의 도량 상원사가 숨 쉬고 있다.
붉은 물이 들기 시작한 도량의 단풍나무에서 가을은 시작되고,
어느새 목우당(牧牛堂) 사립문을 드나드는 찬바람은 하루하루 계절을 좁히고 있다.

찬바람 지나간 자리엔 보랏빛 구절초가 돋아나고,
백련당(白蓮堂) 죽담장 앞에는 스님과 동자 스님이 이야기꽃을 피운다.
어제 일인지 오늘 일인지, 스님은 하늘 한 번 보고 웃음 한 번 웃고, 동자 스님은 머리 한 번 만지고 웃음 한 번 웃는다.

적멸보궁(寂滅寶宮)으로 가는 오솔길을 스님들이 소리 없이 걷고,
수각(水閣)에 날아든 참새는 꽁지만 흔들다 문수전(文殊殿)으로 날아간다.

문수전에는 그 옛날 임금의 병을 고친 문수동자가 천진한 얼굴로 앉아있다.
그 옛날 임금이 아팠듯 중생 모두는 많이 아픈 것일까.
오늘도 문수전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돌계단 옆 고양이 석상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앉고, 길어진 고양이 그림자가 동자스님을 따라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이내)



▶70만원

◆ 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 / 투입구 : 가로350×세로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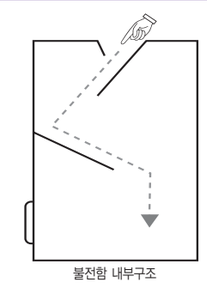
▶40만원

◆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 / 투입구 : 가로190×세로95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BY630 사무가정용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불전함 내부구조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 보광사, 법성사, 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팩스 031)764-6462 / 011-414-2304
[계좌번호] 농협 221103-52-056910 (강순길)
기업 485-005940-01-017 (강순길)

“좋은 인연 만남의 잔치 준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27일 산사음악회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이 ‘소년소녀가장돕기 울산시 군민과 함께 하는 좋은 인연 좋은 만남 한마음 산사음악회’를 9월 27일 오후 6시 30분 지원 경내에서 연다. 음악회는 초청가수와 지원 합창단, 지역 연합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초청가수는 김종환 전영록 남궁옥분 민해경 등 7080세대의 ‘큰 별’들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불자이며 산사 공연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 화려하고 흥겨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원 합창단의 선법가 공연과 울산불교연합합창단의 축하공연도 흥겨운 무대를 한층 뜻 깊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악 퍼포먼스와 퓨전 가야금 공연 가야금 독주 등 흥겨운 무대도 준비된다.

산사음악회봉행위원회 신완창 위원장은 “만남의 장, 화합의 장, 희망의 장 등 3부로 나눠 진행되는 산사음악회를 지역민에게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을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잔치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종교편향 사과합니다”

원로 개신교인 범어사 방문 유감 표명



정여 스님(가운데)에게 유감을 표명한 정영문 목사, 이종석 안수집사, 김상훈 목사.

부산 원로, 중견 개신교인들이 범어사(주지 정여)를 방문,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9월 8일 오후 2시 부산종교인평화회 고문 정영문 목사(80), 부산시민사회총연합 상임의장 이종석(78) 수영로교회 안수집사, 부산종교인대화아카데미 상임대표 김상훈(53) 목사가 범어사 주지실을 찾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타난 일련의 불교 폄하 행태에 대해 “개신교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간에 일부 편향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마치 개신교와 불교 간 대립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유감”이라며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가 그동안 불교계에 이런저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새롭게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불교계도 넓은 마음으로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주지 정여 스님은 먼저 “종교 화합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어 고맙고, 방문해주신 뜻을 의미 깊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종교도 소중함을 인정해야 종교 간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가들이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모여 원만융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패션 1번지에 禪바람 분다

미타선원 ‘참선안심법회’ 고우 스님 등 법문


고우 스님.


하림 스님.


지하 스님.


오경 스님.


월암 스님.


수불 스님.

부산의 경제, 문화, 패션 1번지 광복동에서 불법을 전하는 ‘도심 수행도량’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창건 2주년을 맞는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에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산문예축전 및 선문화원 개원식을 열고, 35일간 용두산 전체를 축제의 불빛으로 환하게 밝힌다.

현재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연구회(1층) 건물 전 층에 자리 잡게 될 선문화원은 개원 전부터 선지식초청 참선안심법회로 선수행의 열기가 뜨겁다. 9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선문화원 설법전에서 총 6주간 진행될 이번 법회는 한국 선의 기틀을 다지며 용맹정진 해 온 선지식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9월 20일 첫 법회에는 금봉암 조실 고우 스님, 27일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10월 4일 前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11일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겸 미타선원장 오경 스님, 18일 지리산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 25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원하는 선문화원은 총 4층으로 1층 갤러리,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2층 사찰음식연구회, 사찰음식점, 3층 선수행학교, 옥상의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된다. 지난 2월초 착공해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개산문예축전 기간 중인 10월 25일 오후 1시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개산문예축전’은 10월 24일 오후 7시부터 극락전 앞에서 ‘천년자비 삼천불 삼천등 점등식’으로 시작해 ‘미타불자 어울림 한마당’으로 2번째 개산대제를 봉축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다음날인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산대제 법회’와 ‘선문화원 개원식’이 봉행된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참선의 생활화를 위해 기초라도 가르쳐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 참선안심법회를 열고 있다”며 “올해에는 개산문예축전과 더불어 선문화원이 새로 문을 여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선 수행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20일부터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미타선원 및 선문화원 일원에서 상설전시행사가 마련된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대상 부산진여고 산청합창단

부산파라미타 ‘2008 파라미타의 메아리’ 개최


‘2008 파라미타의 메아리’.

파라미타 청소년 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푸른 가을 하늘을 수놓았다.

9월 7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 청소년합창대회 ‘2008 파라미타의 메아리’가 열렸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합창대회에는 8월 8일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학교가 본선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함안중학교, 학산여자중학교, 해동중학교, 금정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가 출전해 지정곡 총 3곡 ‘도라지꽃(작곡 박지훈)’, ‘별(작곡 이수인)’, 산유화(작곡 이현철) 중 1곡과 자유곡 1곡으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상은 부산진여고 산정합창단, 금상은 금정중 합창단과 부산여상 해연합창단, 은상은 함안중 합창단, 동상은 해동중와 학산여중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창립12주년 기념 시상에서는 우수지도자 부문 금명중학교 이미감 교사, 광무여자중학교 박혜숙 교사, 모범회원 부문 가야고등학교 2학년 11반 장권현 학생 외 76명이 수상했다.

박지원 기자

염화미소 3인展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연꽃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린다. 개산대제 ‘2008 금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경내에서 ‘염화미소’ 3인展을 마련한 것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강윤성, 김병균, 안기택 3인의 작가가 아름다운 연꽃에 신앙심과 예술적 감성을 함께 담아낸 60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연꽃 문양은 연화좌를 위시해 불단, 천장, 문살, 공포, 탑, 석등, 부도, 기와, 범종 등 사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꽃문양이다. 이 연꽃에는 불교 교의와 신앙체계, 부처님에 대한 불자들의 신앙심, 종교적 염원이 담겨있어 이번 전시회가 더욱 뜻 깊다.

사진전에서는 전시작 60점을 포함 총 120점이 수록된 12절판, 144페이지의 사진집도 발간한다. (051)803-6666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아리카페 1호점

커피향 보다 그윽한 황혼

실버바리스타의 정성 가득한 커피 ‘인기짱’

“서울 홍대 입구에 ‘커피프린스 1호점’이 있다면 마산에는 내가 운영하는 ‘커피시니어 1호점’이 있다”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김승희 할머니(69)는 바리스타다. 자신이 만든 커피를 맛있게, 또 멋있게 마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주인공 직업이 바리스타였다. 바리스타는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을 뜻한다. 생소한 직업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을 깬 곳이 있다.

2007년 3월 문을 연 마산 금강노인복지관의 ‘아리카페 1호점’에서는 어르신들이 서빙부터 바리스타까지 모두 직접하고 있다. 현재 총 10명의 실버바리스타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하루 4개조씩 교대로 근무한다.



이 카페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의 다정다감한 사랑방이 됐다. 이런 이곳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모두 어르신들의 넉넉한 웃음과 경륜 덕분이다.

실버바리스타 김분식 할머니(69)는 수많은 커피 중에서 카페라테를 만들 때 가장 행복해진다. “라테 위에 하얀 우유거품으로 하트를 그려서 커피를 내어주면 손님들이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이 너무 뿌듯하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손자들의 재롱에 편히 쉴 나이이지만 여기 모인 할머니들에게는 배움과 도전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

김분식 할머니의 동갑내기 실버바리스타 전복임 할머니(69)는 항상 맛있는 커피가게로 입소문이 난 탓에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발길이 뜸한 시간이면 괜시리 몸도 마음도 울적해진다. “손님은 아무리 많아도 피곤한 줄 모르고 커피를 만든다”며 “커피를 만들다보면 가끔 예쁘게 못 담아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서로 웃어넘겨 힘들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실버바리스타라는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당찬 실버들을 이끄는 것은 바로 자부심이다. 실버바리스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홍봉미 할머니(72)의 꿈은 오래오래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나이에 꿈이라는 단어를 쓰기 민망하지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커피를 맛보게 하는 게 내 마지막 꿈”이라고 한다.

9월 6일 실버 바리스타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이날 10명의 어르신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1차 관문을 거쳐, 한 달 후인 10월 4일 아리카페에서 실기 시험을 통해 정식 바리스타로 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

최연장자 실버바리스타 홍봉미 할머니는 앞으로 탄생할 후배 바리스타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배우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10월은 노인의 달이다. ‘인생은 60부터’라고 외치며 멋진 제2의 삶을 개척하는 어르신들의 당당함이 멋지다.

박지원 기자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나누고 보살피고 "우리는 '寒가위' 몰라요"

불교계 한가위 자비실천 앞장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 불경기로 '한(寒)가위'라 불리는 때, 호남지역 사찰 및 교계단체들이 지역민간 상생과 화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풍경을 연출해 주변을 훈훈하게 한다.

◇전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공)은 9월 9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지역 내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20Kg 햅쌀 45포대를 함께 나누었다. 전주 금산사 서원노인복지관도 같은 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인근 보문유치원을 방문해 함께 송편도 만들며 세대간 차이를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9월 10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송편빚기와 쌀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매주 무각사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후원기금으로 쌀과 속옷 및 생필품을 마련해 서구지역 독거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족 200세대에 전달했다. 또 부처님전에 올렸던 공양미로 빚은 송편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행사를 기획한 김광란 무각사 기획국장은 "치솟는 물가와 어지러운 사회현실 속에 삶이 고단한 때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해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광주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일)는 9월 11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게 쌀을 지원하는 기념식을 갖고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8월 초부터 지역 불교사찰 등을 대상으로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19개 사찰(개인 참여 4명) 등이 1000kg을 후원해 모인 쌀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된 23개단체의 활동가와 로케트전기 해고노동자 등에게 전해졌다.

법일 스님은 "우리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의 마음을 자비의 쌀에 담았다. 자비의 쌀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각사(주지 도제)는 9월 7일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와 함께 소아암 백혈병 환아 돕기 가을 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바자회(나눔장터)를 비롯해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법문, 소설가 정찬주씨와 독자의 만남, 생명나눔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 윤예중 사무국장은 "사찰과 불교사회단체가 밀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동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백혈병 환아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는 9월 7일 광주 첨단 쌍암공원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걷기대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검진을 목표로 실시된 행사에는 500여의 외국인근로자와 시민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9월 7일 광주 첨단 쌍암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건강 걷기대회(위)와 같은 날 광주 원각사에서 열린 소아암 백혈병 환아 돕기 바자회.

"경찰이 국민통합 앞장서달라"

원행 스님 무주경찰서 워크숍서 법문



9월 4일 무주경찰서에서 원행 스님이 법문 중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종교편향 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 경승단장인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이 "경찰 공무원이 앞장서 국민통합과 지역주민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끈다.

스님은 9월 4일 전북 무주경찰서(서장 신동호) '법질서 확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관내 경찰가족 100여명에게 법문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계가 최근 종교편향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공직자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사적인 감정은 없다"며, "경찰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해 구습을 타파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목민관으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이진현 경무과장, 양해극 수사과장 등 무주 경찰서 관내 직원 140명중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께 '보은염' 공양

제1회 선운문화축제 9월 28일

가을이 무르익는 9월 27~28일 고창 선운사 경내 일원에서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리는 제1회 선운문화축제는 승무와 법고 공연 등으로 야단법석을 이루게 된다.

행사는 부처님께 소금 공양을 올리는 '보은염(報恩鹽)' 공양 의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우리나라 전통다례중의 하나인 규방다례(閨房茶禮) 시연, '산사의 하루' 영상공연, 영산재 등이 준비됐다.

행사기간중 선운사 박물관에서는 임희진 작가의 '생멸의 만다라' 초대전이 11월까지 2달간 전시되고, 선운사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도 열린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는 검단 선사가 창건한 이래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선운문화축제도 사찰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염 공양은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검단 선사가 지역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민생고가 해결되자, 검단마을 사람들이 불은(佛恩)에 보답하는 의미로 매년 봄가을 선운사에 소금을 보시하는 전통이다. 자연환경의 변화로 자염 등 소금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그 전통은 이어져 지역 향토 기업인 삼양사에서 매년 봄가을로 선운사에 소금을 보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자비밥상

광주공원 광장 인근지역 노인 및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상이 제공돼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원각사와 함께 9월 11일 광주공원에서 독거노인 및 노숙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동식 급식차를 이용해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남계마을, 빛고을 연등축제, 용연마을 등 봉사에 이어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원각사 봉사단 1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찾아가는 따뜻한 밥상'은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 · 제공해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불교사찰 자원봉사팀이 공동으로 참여해 불자들의 사회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사)자비신행회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단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익산 관음사 이리불교대학 가릉빈가합창단

인연법 공부 '합창삼매'로 회향

'음성공양' 보시행, 가릉빈가의 원력

가는 여름이 아쉬운 듯 따가운 햇살이 반갑지만은 않은 9월 어느날 오후. 익산 불교 중심이라 불리는 관음사 2층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고운 화음이 흘러나와 도량 전체를 감싼다.

1991년 익산 관음사 주지 일화스님과 작곡가이자 불음보급회 회장인 조영근 선생, 그리고 가릉빈가합창단 초대회장을 역임한 최병섭 거사,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 거사 등 지역 내 여러 불자들의 성원 속에 이리불교대학 가릉빈가 합창단(단장 김진수, 회장 문순복, 이하 가릉빈가 합창단)이 창단했다. 가릉빈가 합창단은 매주 일요법회와 매월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의 일상법회와, 초파일, 백중 등의 연중행사, 지역대내외 행사 등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고운 목소리로 불보살님과 대중에게 공양하기 위해 이재엽 지휘자 지도에 따라 매주 화요일이면 실전같은 연습을 한다. 음성공양 원력으로 모인 단원들 하나하나가 성대를 가다듬고 음률을 고르며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은 합창삼매 그 자체다.



가릉빈가합창단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익산지역 합창단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역 내 크고 작은 사찰행사면 찾지 않은 곳이 없다. 사찰 음성공양 뿐 아니라 소쩍새 마을, 양로원같은 불우시설을 돌보며 위문공연도 하고 봉축기간 중에는 찬불가 발표도 하는 등 수많은 활동은 가릉빈가 합창단의 일상사다.

지역내 위치한 제7공수 여단, 9군단 등 군법당을 순회하며 불자 장병들에게 찬불가 지도도 한다. 거의 모든 찬불가를 수록한 240쪽에 달하는 <생활속의 찬불가>라는 제목의 찬불가집 발행도 가릉빈가합창단의 자랑이다. 익산 불교음악회를 개최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찬불가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가릉빈가 합창단의 음성공양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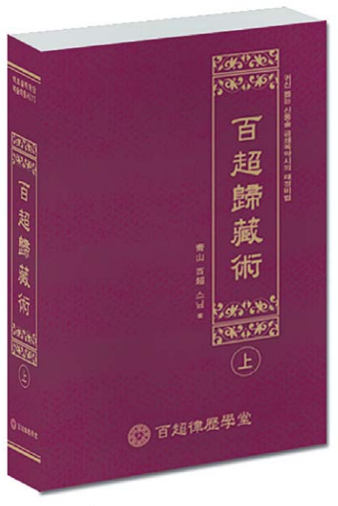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가릉빈가합창단은 음성공양으로 나서 도왔다. 서해 위도 페리호 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을 때는 직접 거리공연에 나서 페리호 유족돕기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이때 모아진 성금을 유가족에 전달했다. 지역에 극심한 가뭄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농촌지역 마을에 우물을 파 보시했다.

"합창단은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합 없이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지요" 문순복 회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릉빈가합창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불교의 인연법을 알고 실천하는 단원들의 열정과 단원들의 일치단결된 모습에서 보이는 화합된 모습이다.

가릉빈가합창단 지도법사 덕림 스님은 "자칫 무료할 수 있는 법회 분위기를 순간 환하게 빛내주는 데에는 합창단 공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수 단장은 "가릉빈가합창단이 올바른 신심을 바탕으로 찬불가 보급은 물론 봉사활동 등 익산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합창단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전주, 군산, 익산 등 이웃 도시의 불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불가를 부를 수 있는 불교음악제를 개최하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9월 24일 수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공포·향토·절정 모두 영기문으로 가득…충만한 생명

석굴사원 · 무덤 천장 연꽃이 바로 법계
범자 탄생케하는 제3영기 싹 만물생성 근원

2. 적멸보궁 내부의 세계

우주에 충만한 영기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 영기문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형이기 때문입니다. (도 1) 앞 회에서는 기단부가 어떻게 영화되고, 기단부의 사방으로부터 어떤 영기가 발산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영기문(靈氣文)으로 영화되어 힘을 받은 바로 그 기단에서 법계라는 공간을 만든 적멸보궁이 영기화생합니다.(도 2-1, 2-2) 그 세계는 영기 즉 생명과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비로자나의 나타남이라 했으니 삼라만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의 내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둥 위에 있는 공포는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소의 혓바닥(쇠서)이라 인식하고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암호 같은 영기문을 해독하여 마침내 공포에 중요한 상징이 집약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의 내부만 다룰 수 없으므로 외부도 함께 다룹니다.(도 3-1, 3-2) 외부의 공포의 살미(십자로 구성된 공포의 앞뒤 방향의 부분)는 단순한 편으로, 원래는 복잡 화려한 영기문으로 칠했지만, 그것을 단순화시키면 바로 제3영기 싹을 입체적으로 조각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도 3-3) 그 증거로 갈래 사이에서 빠알간 연봉 같은 것이 작게 삐져나오고 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건축 내부의 공포는 외부 것보다 화려합니다. 살미 아래 부분은 단순한 편이지만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연결된 윗부분은 영기문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측보고서에는 그 윗부분의 단청이 실려 있지 않아서 사진을 살펴서 따라 그려보니 바로 제3영기 싹이 연결된 덩굴모양 영기문이었습니다!(도 3-3) 갈래 사이에서 빠알간 연봉모양 생명이 탄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제3영기 싹 모양들이 공포의 안팎의 살미를 이룹니다. 그러면 왜 공포에 그런 영기문이 안팎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단에서처럼, 건축 공간 안에 생명이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고, 밖으로는 사방으로 발산하는 영기를 힘차게 뻗치게 했습니다. 동시에 내부의 각가지 부재는 모두 영기문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으며, 부재 표면에 역동적인 영기문들을 화려하게 칠해서 우주에 충만한 영기를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조선시대 사원 천장은 편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둥근 궁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적멸보궁의 천장의 중심부에는 사방 2미터 쯤 되는 감실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도 4-1) 그 작은 천장에 가로 지르는 등간격의 목재에 지극히 화려한 영기문이 조각되어 있는데 천장 바닥은 검은 색입니다.(도4-2) 현색(玄色)의 밤하늘의 천공입니다. 그 밤하늘의 천공의 가장 깊은 천장 바닥에 바로 이 '제3 영기 싹'이 연결하여 전개하여 가는 영기문이 검은 색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도 4-4) 이 무늬도 실측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가로지르는 목재에 조각된 영기문은 전주 풍남문 화반에도 있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물생성의 근원인 물이 들어 있는 항아리 속으로부터 잎들과 꽃들이 힘차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모양 영기문에 다시 제1영기 싹이 발산하고 있습니다!(도 4-3) 그러니 항아리에서 이들 영기문들을 빼내어 펼치면 바로 적멸보궁 중심 천장의 영기문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석굴사원이나 옛 무덤의 천장에 큰 연꽃을 태양처럼 그려 넣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축공간이 바로 우주이며 법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상을 안치하지 않은 불단을 살펴볼까요. 불단은 길이 10미터, 높이 2미터에 이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단일 것입니다. 층층이 여러 가지 무늬가 투각되어 있는데 모두가 영기문들입니다. 가장 맨 밑의 무늬를 귀면(鬼面)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용의 얼굴입니다.(도 5-1) 왜 그런지 증명해 드리지요. 그려보면 금방 압니다.(도 5-2) 용의 양 입가에서 양쪽으로 제3영기 싹으로 연결된 긴 영기문이 나오며 길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추상적 무늬로 환원시켜 봅니다. 불단도 맨 밑과 그 위의 모든 부분에 영기문을 투각하여 대좌를 강력히 영화시킵니다. 그러나 불상은 탄생하지 않는 아이러니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만물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단 위에 높이 50센티 대 청동향완이 놓입니다.(도 6-1)

수없이 가본 통도사 성보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강희13년(1674년)명 청동은입사 향완을 살피다가 향완 몸체의 은입사(銀入絲) 무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도 6-2)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고구려 사신총 영기문과 똑같았습니다!(도 6-3) 범자(梵字)를 탄생하게 하는 둘레의 무늬도 제3영기 싹 덩굴무늬입니다! 그리고 그 밑 대좌 앞뒤에 은실로 나타낸 두 봉황의 몸과 입에서 발산하는 긴 제3영기 싹 덩굴무늬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봉황이 영기문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영기가 발산하는 것입니다.(도 6-4, 6-5) 봉황은 동물이 아니라 영기의 집적(集積)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의 1미터 46센티의 범종의 표면에 새겨진 네 보살이 각각 바로 제3영기 싹을 받들고 있습니다!(도 7) 왜 봉황의 몸에서 제3영기 싹 무늬가 발산하고, 범종의 보살이 손에 들고 있을까요. 그 무늬가 바로 만물생성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멸보궁에는 내부 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리고 불단의 용의 입에서, 그리고 그 불단 위에 놓였던 대향로의 두 봉황과 범자에서, 그리고 범종의 보살에서 제3영기 싹 무늬가 발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건물 외부, 지붕 위의 청동 상륜부에서 다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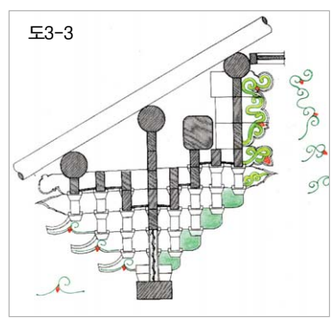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우주에 충만한 영기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 生命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무늬들이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쓰여서 만물생성의 근원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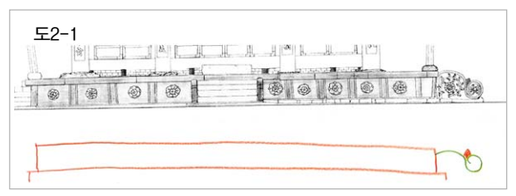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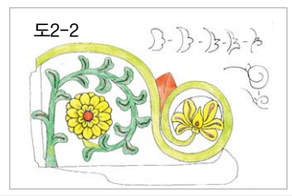
<3-1>외부 공포. <3-2>내부공포. <3-3>외부 공포와 단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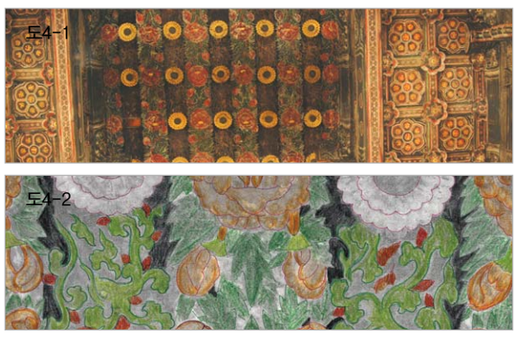


<5-1> 불단 맨 밑부분.
<5-2> 영기문(제3영기 싹의 덩굴무늬)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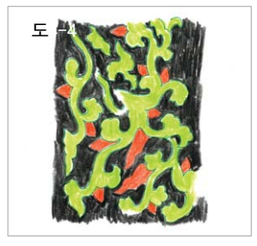




<2-1>기단에서 발산하는 영기.
<2-2>기단부에서 발산하는 제3영기문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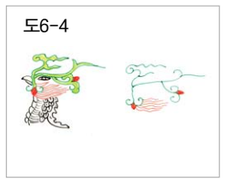


<4-1>천장무늬와 채색-만물생성의 근원을 보이는 무늬.
<4-2>천장 단청 채색.
<4-3>풍남문 화반 채색 분석.
<4-4>천장 바닥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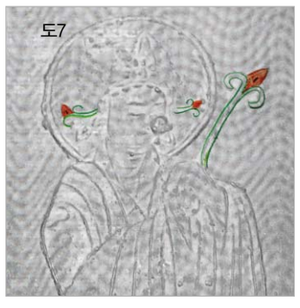








<6-1>청동향완 1674년, 높이 49센티.
<6-2>제1영기 싹이 돋아나는 긴 영기문이 노란 매듭을 통해 두 갈래로 갈라지며 전개하는데, 한 끝에서는 연꽃모양 영기문이 활짝 피고, 다른 갈래의 끝에서는 성스러운 범자(梵字)가 탄생한다. 그리고 둘레의 제3영기 싹 덩굴무늬 띠 아래부분에서 세 잎 모양의 영기가 발산한다.
<6-3>향로의 무늬가 고구려 사신총 무늬와 똑같다.
<6-4>강희 13년 명청동 향완 앞 봉황무늬.



범종에 새긴 보살의 손에서 제3영기 싹이 받들어져 있으며, 보관 양쪽에서도 같은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

고무신코 만 행 화
2008년 9월 5일 ~8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예정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조극게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 록 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강 사 : 우희종(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 교수)
주 제 : 복잡계 이론으로 본 깨달음의 구조
일 시 : 2008년 9월 6일
장 소 : 우리함께회관 6층 선우법당
주 최 : 우리는선우 9월 정기법회

"깨달은 사람 많아도 깨어있는 사람 적어요"

자연현상 전혀 간단하지 않아 … 각각의 관계 속 다양성 지녀
관계와 진화에 주목한 복잡계 이론, 화엄세계와 일맥상통

한국 종교계는 현재, 종교자유 질서를 파괴하는 종교편향의 소용돌이에 있다. 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만행이라면 무죄가 성립되는가. '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학진 인문학단장 · 건국대 철학과 교수)은 법회를 열며, "종교의 장점이라면 물론 '관용'도 있겠으나 한국의 현안을 마주한 이 때 불교야 말로 사회 질서의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종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교계가 반성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범불교도 행동이 불교를 넘어 불교계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운동으로 전개되길 발원한다"면서 '복잡계 이론으로 본 깨달음의 구조'를 주제로 한 우희종(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 교수의 강의를 청했다.


판화가 에셔 作 '도마뱀'


재가신행결사로 올바른 불자의식운동을 전개해온 (사)우리는선우 토요법회 현장.

종교 갈등이란 사회 · 경제적 입장 차이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금 같은 때에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이었던 불교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70~90년대를 거치는 동안 과연 민중과 함께 한 불교였냐고 묻습니다. 친정부적인 불교와 거리가 멀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불교계는 진지한 참구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종교로 인해 인간이 피해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자는 자성의 깨달음을 통해 부처의 삶을 닮고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간화선을 표방합니다. 화두는 오매일여(寤寐一如)로서 자나 깨나 성성한 본래 성품을 보도록 하죠. <금강경> 설법을 들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이 사회는 관념화된 깨달음이 강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간화선도 좋은 수행입니다만 지금은 되돌아보는 수행이 더욱 강조돼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은 悟者인가, 覺者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돈오(頓悟)가 지향하는 바가 수행의 끝점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각자이지 오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깨달음과 깨어있음이란 무엇일까요. 한국불교의 간화선은 오(悟)를 강조하고 있지요. 사사무애(事事無碍)의 깨달음을 강조한 <화엄경>에 주목합니다.

현재 나는 어디 있는가. '나'라고 하는 개체고유성이 있습니다. 아상(我相)이라 하지요. 그 안에 심리적인 관계가 있고 주변과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자연의 관계로 확대됩니다. 나는 개체고유성으로서 하나입니다. 각자 모양대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사는 '화엄'입니다.

2000년대 들어 주목받는 복잡계 이론은 정신적인 신경과 신체적인 자기 면역으로서 개체고유성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태어나 섭취를 통해 육체는 성장하지만 신경과 면역은 반드시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기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의 나를 형성합니다. 관계의 총체적인 누적에 의해 결정된 나입니다. 즉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존해가는 것이죠.

의미와 가치의 창발현상(Emergence)

깨달음의 구조와 복잡계 구조의 특징은 연관이 깊습니다. 물질이 모여 관계의 맛을 냅니다. 관계에 의해 완성된 바람직한 맛으로 불자들은 관계를 심화해 어느 한 순간 창발이 일어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부분 안에 전체의 모습을 갖는 무한한 단계의 모습, 이것을 '프렉탈(Fractal) 구조'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바이러스가 반복의 관계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케일의 대소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문양을 지니죠. 이것은 자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은 간단한 듯 반복되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만다라'입니다. 만다라 구조를 보면 반복과 기하학을 발견합니다. 신경정신과의사 칼 구스타프 융(1875~1961)은 '나의 전체성 · 통합성 · 총체적인 나를 표현한 것이 바로 만다라'라고 정의했습니다. 전체로서 나를 표현했다는 의미죠. 이것은 고승들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반복 체험입니다. 깨달음의 주체는 몸을 매체로 개체고유성이라는 생명현상을 나타냅니다. 창발적 생명현상인 개체고유성은 구체적 실체가 없는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각각의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지니죠.

지구가 만들어진 빅뱅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누적된 150억 시간이 현존하는 인간이 지니는 시간의 나이테입니다. 나의 원인을 돌이켜 뿌리를 찾을 때 우리의 나이는 150억년입니다. 인간은 가치를 잣대로 다양성을 망각하며 차별합니다. 모든 것이 각각의 모양새로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승찬 선사는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 했습니다. 차별 없는 곳에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화엄 세계를 장엄합니다. 각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 창발적인 구조로 진화해 가는 것, 이것을 복잡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 있습니다. 이를 화엄 세계라고 합니다. 깨달음과 연결되는 복잡계 현상의 특징은 일반 현상과 틀립니다. 물이 끓다가 어느 시점에 수증기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극심한 변화의 가장자리라는 말로 '상(相)전이'라고 합니다. 경계까지 꽉 찬 임계상태죠.

멱함수(冪函數 · Power law)

세상이 좁다고들 말합니다. 네트워크라고 하죠. 복잡계 현상은 어느 상태가 되면 상전이가 일어납니다. 나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정신 관계로 인한 삶의 반복입니다. 150억년 시간의 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선조들이 연구해온 자료들이 도서관에 가득하지만 정신은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삶이란 관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는 관계의 덩어리입니다. 개체의 탄생과 소멸을 통한 삶의 반복으로 나만의 존엄성이 발현됩니다. 개체고유성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판화가 에셔(1898~1972)의 그림 '도마뱀(1943년作)'처럼 반복성을 통해 개체의 근거와 고유성이 나옵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이로써 가능하며 창발되는 소중함을 확인할 때 엄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해 본적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심심한 일상의 삶이란 연기에 의한 것으로 성낼 필요도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평상심, 이것이 도(道)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권합니다.

복잡계와 깨달음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대선사의 깨달음과 일상의 깨달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부처와 같이 큰 깨달음이냐 하는 것은 임계상태 여하에 의한 것입니다. 창발현상에 의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삶의 역사성(業)으로 부처의 삶에 이르도록 합니다.

깨달음이란 항상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이 가치를 떠나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화엄입니다. '도'란 어렵지 않습니다. 간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임계상태가 될 때 깨달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평소 내 삶에서 깨달음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축적에 의해 저절로 창발 됩니다. 삶과 삶의 현장 양쪽을 아우르는 변화의 가장자리에 선 경계의 삶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편안함을 길들여가는 나눔의 자세로 변화의 창발적 사유을 하십시오.


우희종 교수.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은 자는 많으나 깨어있는 자는 적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라보며 깨달음의 탈신화를 모색합니다. 평상심을 강조하고자 '평범'에 주목합니다. 일반이란 집단 대다수의 공유지만 평범이란 인간이 살아가며 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깨어있음으로 일상을 적극적인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계회복의 삶을 발원합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는데 '단념'과 '체념'은 독입니다. 약자가 취하는 폭력이죠. 부처님은 과정을 강조하셨습니다. 희망으로 인해 내 삶의 소중함을 잃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희망에 목매지 마십시오. 불자라면 강자의 입장이건 약자의 입장이건 관계회복을 위해 삶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오(大悟)란 각성을 이루는 바탕인바 '오'가 곧 '각'이 되기 위해 얻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주체인 인간, 깨달음이라는 행위, 그리고 깨달음의 대상으로서의 연기법, 이 셋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음과 삶은 소중한 경이로움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평상심과 깨어있음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놓지 않을 때 임계상태는 저절로 축적됩니다. 평상심으로 매 순간 날이 선 취모리(吹毛利)를 간직하십시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279,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구니와 한국 문학 이향순 지음 | 예문서원 펴냄 | 2만원

고전·근대문학 시각으로 본 비구니들의 삶



#한반도 최초의 비구니는 누구일까?

고타마 싯타르타의 이모 마하빠자빠티(Mahāpajāpati). 그녀의 출가로 승가의 비구니 역사는 시작됐지만 정작 한국불교 비구니의 초석이 어떻게 놓여 졌으며 어떠한 삶을 살다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몇몇 학술대회에서 소주제로 다루어질 뿐 공통의 연구주제로 심화된 사례가 드물었던 원인도 클 것이다. 그만큼 비구니가 주목을 받기란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것이 한국 불교사의 어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베일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던 한국불교 비구니의 1700년 세월을 면밀히 조망한 <비구니와 한국 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비구니에 대한 심각한 자료 부족으로 대두되는 질문은 '한국불교에서 비구니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비춰졌는가'이다. 저자는 가장 기초적인 물음으로부터 긴 여정의 첫 발을 딛는다. 과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찾을 것인가. 지금까지 비구니문제는 불교학계뿐만 아니라 여성학계에서도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저자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시각을 빌어 전통시대 비구니들의 수행과 삶을 구체적으로 되짚어 고찰한다.

#인간, 비구니(比丘尼, bhiksuni).

문학에 나타난 여승의 존재는 연구가치적 측면 이외에도 특수한 신분이 지닌 정체성에 있다. 저자는 "비구니를 묘사하는 데 일정한 문학적 기법이 반복 · 유형화 되어 그 특징과 배경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그들이 처했던 사회현실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예기교 상 작가가 지닌 주제 의식과 시대 현실 속에서 비구니가 처한 위치와 화두는 사회의 통념이라는 관계 속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출가수행자와 여성이라는 성의 양면성을 한국문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다양하게 고찰한다'는 것이 한국문학으로 바라본 비구니사의 남다른 성과다.

#가자. 피안의 지혜로.

저자가 거론하는 지혜와 자비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룬 영화 '아제아제바라아제(감독 임권택 · 1989)'는 편린으로 존재해 온 변방의 비구니를 대중의 곁으로 끌어들인다. 보살도의 만행으로 그려지는 수행자라는 이름의 군상들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된다. '인간이 피와 살로 만들어진 살아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행자도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견성성불을 통한 완벽한 해탈도 없다'는 것이 비구니를 통해 투영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대안이다.

<비구니와 한국 문학>은 비구니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궁금증을 심화하고 증폭시키면서 고뇌하는 구도자임과 동시에 혼란한 시대의 귀의처로 어머니이기를 자처한다. 삼국시대로부터 현대 문학에 이르는 비구니의 초상이 지닌 고결함의 족적을 따라 은둔의 베일을 벗고 동행해 보자.

저자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학교 비교문학)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명멸해 간 비구니들 삶의 궤적을 찾으며 이 땅에 말없이 수행의 향기를 남기고 간 모든 비구니들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마음을 밝혀주는 유교사상을 지닌 교양서



우학스님 명심보감 강의 上 · 下
우학 스님 글|좋은인연 펴냄 | 각 1만원

"단순히 모범적인 삶의 모방이나 행동양식의 답습이 아닌 마음 자성의 자리를 밝혀 자각하십시오. 보다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견인차 구실을 하길 바랍니다."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우학스님의 명심보감 강의> 상 · 하권을 출간했다. 유교 사상을 지닌 교양서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불교를 포함한 동양 사상을 고스란히 담았다. 각각의 사상들이 불교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불교사상을 다시 한 번 되새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음 다스림을 타이르는 존심편(存心篇)에 의하면 '손사막이 말하기를, 담력이 크고자 하려면 마음은 세밀해야 하고, 지혜가 원만하고자 하면 행실은 방정해야 한다'고 이른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계(戒) · 정(定) · 혜(慧) 삼학을 두루 닦음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과 통하는 부분이다.

이번 <우학스님의 명심보감 강의>는 관음사 서울도량 건립 발원으로 출간된 것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 오래 전부터 간화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선교쌍수로 후학을 지도해 온 스님의 또 하나의 결실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심보감 강의>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 심성의 교양을 살찌우는 계기로 삼아 보는 것도 좋겠다.

가연숙 기자

인도 고대지식에서 찾은 자연치유의 지혜



자연의학 아유르베다
데이비드프롤리 · 슈바슈라나데 지음 | 황지현 옮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 | 1만5000원

"성공적인 <아유르베다> 의사는 가장 많은 환자를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환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아유르베다>의 현자로 인정받는 차라카의 말이다.

5000년을 거슬러 내려온 인도 고대지식에서 찾은 자연치유의 지혜, <자연의학 아유르베다>는 현대 건강관리 체계의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아유르베다> 해석서이다. 몸과 마음을 넘어 영혼으로 향하는 접근법으로 적용면에서 현대 의학의 완전한 전인치유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강조한다.

'아유'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모든 측면으로 천성의 모든 측면을, '베다'는 삶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적인 우주의 지혜를 의미한다.

<아유르베다>는 만물의 모든 치유력을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웰빙을 지배하는 신체적 · 영적 법칙들을 알지 못한 채 행위에만 머무는 현대인에게 아유르베다는 조화의 법칙을 제안한다. 각자가 지닌 위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완벽한 건강과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목표로 안내한다.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치유 물질을 통해서 특별한 에너지와 교감을 나눈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6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7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9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 외	민족사
10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김광하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화제집중
관세음보살 순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연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액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픽(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혜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천선사 대웅전 건립 불사
봉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대웅전 건립불사를 위하여 다라니 정진기도 중입니다. 아름다운 인연으로 대웅전 건립불사에 많은 불자님께서는 참여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눈 달린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다"

저자, 책을 말하다 묘봉 스님(화계사 문화원장)





거꾸로 읽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이 뭐꼬?
묘봉 스님 풀이 | 20,000원

부처가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사신다면 과연 <천수경>을 무엇이라 설하실까? 한문이 어려워서 한글로 풀어 주실까? 세간에 떠돌아 다니는 허다한 해설서들을 보시고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

 #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 '어디서 눈뜨냐'가 중요

첫째, 불교가 어렵다고들 말한다. 정말인가?

한문의 문제인가 아니면 범어나 팔리어에 문제가 있는가? 말씀자체가 어려운가? 혹시나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를테면 공부하지 않으려는 병에 걸려 시대와 세태를 탓하는 무리를 보시면 어떻게 대처하여 도와주실 수 있을까?

둘째, 다종교 시대, 불교에 대한 불평은 거의 정치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종교의 실증화로 말미암아 신앙과 철학을 따라 투정어린 단순성과 현세적 안일과 행복에 매도되어 인간성 자체의 괴리감을 체험하게 한다. 예컨대 사람의 사회성, 생활성, 종교성에서 거리가 멀다는 투의 불평들이다. 사실일까?

셋째, 불교는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안팎으로 공통적인 교계의 실토나 의문점이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religion'과 종교는 전혀 다른 말이다. 단순한 이 번역이 유교나 불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이 대답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불교대학을 다닌 것도 서양철학을 일부러 전공한 것도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뒤에 강단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외국에서 강의하고 보다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전문가들과의 교분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나라 안팎에서 강의한 중요내용과 방향은 학교에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서양 대학에서 얻은 지식도 아니었다. 저들을 일깨우고 불교를 소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두 스님에게서 주어 들은 법문이었다. 덕산(화계사 조실) 스님과 혜암(수덕사 방장) 두 스님이었다. 결국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눈뜨게 되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그 이름이 다만 부처일 뿐이다"

"부처가 부처가 아닐새 그 이름이 다만 부처일 뿐이다."

부처가 그러하다면 불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소위 불교가 있지만, 인간 자신을 깨우치시는 부처님 말씀 그 자체는 없다. 본래 불교라는 종교도 없는 것이고 부처님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진리 그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진리는 이미 그들 자신이 진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터이며, 이는 마치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인간은 마치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말없는 것이 부처이다"

부처는 자신을 위하여 설할 수 없다. 말없는 것이 부처이다. 인간과 중생도 자신을 설할 수 없다. 중생은 자신이라 부를 것이 없다. 진리의 참된 말씀은 누구의 작품이어서도 안된다. <천수경>은 부처의 말씀도 아니고 중생의 설함도 아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며 소위 신과 고리를 연결 맺는 서구적 종교도 아니다. 구원과 의지의 절박함은 어느 경우에도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들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모든 말과 경계들이 하나도 부처님의 말씀 아닐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중요한 인용구는 인간의 편벽증에서 온다. <천수경>이 부처님 말씀일 터가 없지만 부처가 깨달음이라는 가장 비 인간적 실체를 이름으로 부여하는 한 동시에 가장 신실하고 완전한 부처님 말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 숭배이며 거룩한 증득(證得)이요 자기 초월이다. 해탈의 체험인 것이다.

#제 마음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모두 잡소리

법문의 병에 걸리면 남을 가르치려는 고약한 오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 오만은 본래 속임수이지만 남 보다 제 자신에게 독약이다. 그래서 필경 살생을 자행하게 된다. 법문하는 병이 바로 술이다. 나아가 음행이다. 도둑질이다. 안팎으로 속이느라 속는 일이므로 간탐이며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된다. <천수경>은 당연히 인간의 부조리와 불성의 문제를 다룬다.그리고 그 실체를 관음(觀音)으로 본다. 부처님이 밖에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지시하기 위하여 나를 돌이키는 까닭에 밖으로는 관음의 가피를 입는다고 이른다. 부처를 찾지 않고 그 부처를 성취하는 것으로써 저절로 부처님을 뵙기 때문에 경, 혹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칭호를 얻는다. 그리고 스스로 이 모든 사실들을 터득하게 하므로 부처님의 말씀이듯 곧 염불이라고도 부른다. 그 어느 것도 염불 아닌 것이 없으니 새소리 물소리를 돌이키면 모두 부처님 법문인 까닭이나 제 마음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모두 잡소리이며 번뇌의 마구니다. 모든 대립과 갈등들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번뇌와 보리, 나아가 중생과 부처, 필경 주인과 종이 한 몸을 이루는 이치가 모두 여기에서 비롯한다.

#천수경으로 보는 인간성 회복과 견성의 길

해설과 해석과 단순 풀이를 떨치고 일어나 <천수경>을 인간성 회복과 견성의 길로 뒤집어 보려는 시도라 일컫는 이유이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화두로 돌이키도록 종용하며, 일러주어 얻게 함이 아니라 집요하게 소유되어진 지식들을 추격하여 파괴하고 근거 없는 신앙심을 지혜에 기대어 버리고 과감히 본래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시도를 조장한 것이다. 불교 특히 선의 입문이라 부르고 싶은 까닭이 여기 있고 첫 판의 부제목이 '눈 달린 돌 사람 글자 없는 책 읽다'인 까닭이다. <천수경>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 부처의 길은 하나이며 이를 고집멸도로써 설명할 수 있다면 <천수경>은 그 구체적 방편이며 해설인 셈이다. 인간은 그 자신을 통하여 자기회향을 지향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어리석음과 성질부려 괴롭히고 욕심내어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인 것이다. 깨달음의 온전한 가능체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5>

법문 들은 제자들은 누구였나?

부처님의 곁을 늘 따르던 제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상수중(常隨衆)과 내집중(來集衆)이다. 상수중이란 글자 그대로 항상 따라다니는 무리라는 뜻으로서 쉽게 말하면 인간제자집단(人間弟子集團)이다. 이 인간제자집단들을 다시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 등 네 부류(部類)로 나누지만 일반적으로 상수중이라 하면 출가(出家) 대중을 말한다. 특히 이들은 늘 부처님 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경(經), 즉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됨으로 성문(聲聞)이라고도 부른다.

내집중이란 타방세계(他方世界)에서 오신 대중이란 뜻이니, 다른 세계의 불보살님들이 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오셔서, 사바교주(娑婆敎主)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法化)를 찬양(讚揚)하시고 장엄(莊嚴)하셔서 그 법화(法化)가 더욱 널리 퍼지고 법익(法益)이 영원히 두루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상수중, 부처님 곁에 머물며 법 듣는 제자
내집중, 타방에서 와 법문 찬탄하고 장엄

그분들이 오셔서 법회(法會)를 더욱 장엄하게 하신다 함은 때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매우 만나기 어려운 법문이니 잘 들으라고 찬탄 권유하시는 것이다. 마치 <아미타경(阿彌陀經)>의 경우와 같고, 때로는 <법화경(法華經)>에서와 같이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몸소 허공에 솟아올라 신변(神變)을 보이거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게 하여 시회대중(時會大衆)들이 미증유(未曾有)의 마음을 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내집중을 영향중(影響衆) 즉(卽) 영향을 주는 대중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인 이 무렵의 상수중은 그 수효가 이미 천이백오십인(千二百五十人)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총칭(總稱)하는 말로서 천이백오십인(千二百五十人), 또는 1,250비구(比丘) 또는 1250아라한(阿羅漢)이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1250보살승(菩薩僧)이라고도 하였으니, 왜 그렇게 호칭(呼稱)이 달라졌을까.

그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언어(言語)의 속성상(屬性上) 한 단어(單語)는 한 가지 '말값'만을 지니고 있다는 원칙(原則)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의미가 없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천착(穿鑿)이라고도 하겠지만 속담에 <아하> 다르고 <어허> 다르다 했으니, 이유는 없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동일한 집단을 지칭(指稱)하는데 사람, 비구, 아라한, 보살승 등 네 가지 호칭(呼稱)이 등장하는 원인은 없지 않을 것이요, 없지 않다면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추상(推想)컨대, 그분들도 일단 사람이니까 사람[人]이라 했고, 출가사문이기 때문에 비구(比丘)라 했고, 모두가 아라한이 되기를 희망(希望)했기 때문에 아라한(阿羅漢)이라 했고, 모두가 끝내는 성불할 수 있는 불종자(佛種子)를 내포(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승(菩薩僧)이라 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발심에는 선후가 있을지언정 출가 그 자체가 성불은 아니기 때문에 출가한 이에게도 과오(過誤)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假定)이 성립될 수 있으니, <능엄경(楞嚴經)> 첫머리에 아난존자(阿難尊者)가 마등가(摩登伽)의 음실주변(淫室周邊)을 배회(徘徊)하다가 마등가의 주술(呪術)에 홀려 혼쭐이 났던 것이 바로 그 한 예(例)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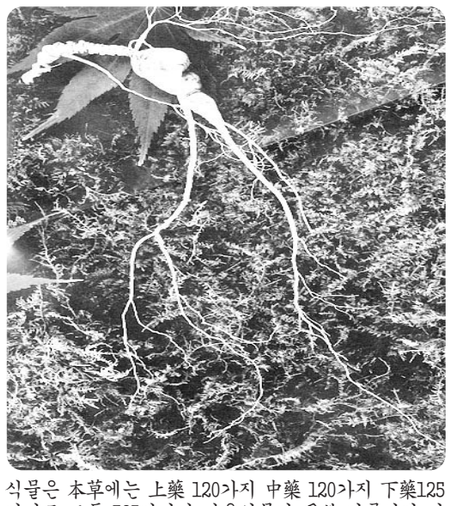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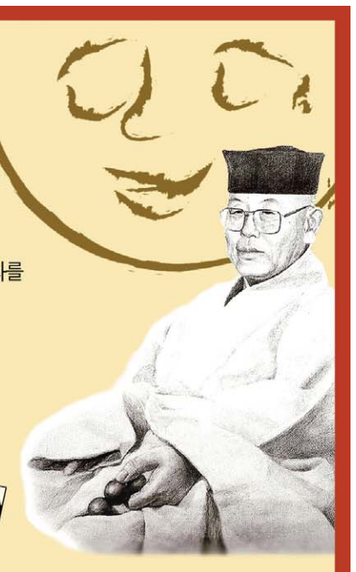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심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최고의 깨달음은 '무집착'

오늘의 禪語 ㉟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殺佛殺祖)."

이 말은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임제의현(?~867)의 말씀입니다. 임제 선사의 말씀은 항상 좀 과격하고 파격적입니다.

제가 열여덟 살 무렵 월정사에서 하안거를 할 때입니다. 의례히 하안거를 시작하는 날(음 4월 15일, 결제일)에는 산내 대중들이 모두 모여 조실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탄허 스님께서 하안거 법어를 하시던 중에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말씀 끝에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니(殺佛殺祖). 불제자로서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면서, 어떻게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 선지식도 죽일 수가 있을까? 두려움으로 가슴이 쿵당거렸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니.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보통 사람도 아닌 임제 선사의 말씀이고 또 탄허 스님의 말씀이므로 무언가 다른 뜻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에서 단하천연 선사가 방이 추워서 법당에 모셔져 있는 목불(木佛)을 쪼개서 아궁이에 불을 땠다는 고사를 읽고 나서야 겨우 이해하게 되었지만 속 시원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도 안 되었는데 억지로 이해한 척 한 것뿐입니다.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여라(殺佛殺祖)."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정말로 부처를 보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도 죽이라는 말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처나 조사라는 권위와 형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또는 "부처나 조사가 깨달은 경지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형상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겉모양이나 형상, 그리고 음성에서 여래(진리)를 찾는다면/ 그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선하는 자가 부처나 조사의 형상과 이름에 얽매여 버린다면 그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나 조사가 깨달은 경지에도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제자가 자신의 목표를 스승에 둔다면 그는 스승 이상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한다면 그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수행자도 부처나 스승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면 그 역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형상 관념에 막히면 진리 제대로 볼 수 없어
'부처·조사 경지 뛰어넘으라'는 말과 같아

선의 사상적 토대는 '공(空)' '중도' '무집착'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관념이나 개념, 가치관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은 다름 아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즉 무집착입니다. 부처나 조사는 항상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지만, 그러나 부처나 조사의 성스러움(형상)에 얽매인다면 그 역시 집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말을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설사 살아 있는 부처가 아닌 목불(木佛)이라고 해도 감히 불제자로서 쪼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불살조(殺佛殺祖)는 선어 가운데 "부처의 경지도 뛰어넘고(超佛) 조사의 경지도 뛰어 넘으라(越祖)"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형상과 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참선자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부처냐'는 질문에 '마른 똥 막대기다' '마삼근'이라고 한 것도,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부처의 경지도 뛰어넘고 조사의 경지도 뛰어 넘으라'는 말도 모두 관념의 장벽에 막혀 있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토록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가치관은 세속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속의 보편적 가치관은 지식과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만, 선은 무소유와 무집착을 중시합니다. 또 선어는 대부분 파격적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번뇌에 찌들어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그 번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면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여래의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하라"

쏘나 비구니

밤 새워가며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법 실천
최후 갈망 내려놔야 '본래면목' 확인하게 돼

"지칠 줄 모르고 정진한 이는 쏘나(Sonā) 비구니다."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에서 부처님께서는 뛰어난 제자들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쏘나 비구니를 '정진 제일'이라고 칭찬하셨다.

쏘나 비구니는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서 열네 명이라는 많은 자녀를 두었던 때문에 바후뿟띠까(Bahuputtikā)라고 불렸다. <법구경>과 <장로니게 주석>에는 그녀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한 때 사왓티(舍衛城)에 한 부부가 결혼한 아들 · 딸 열넷과 그들에게 딸린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자녀들은 얼마라도 재산을 상속 받기를 원했기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저희 집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들에게는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한 분을 잘 모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셔서 재산을 물려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들 · 딸들이 하도 졸라대었으므로 결국 어머니는 그들이 자기를 잘 보살펴 주리라 믿고 전 재산을 모든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

재산을 상속한 뒤,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에게 가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두 몫이라도 주신 것처럼 우리 집에 와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다른 불평까지 한없이 늘어놓았기 때문에 바후뿟띠까라는 이름의 이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갔다. 그렇지만 둘째 며느리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도 그 집을 나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녀는 아들, 딸네 집들을 돌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를 오래도록 편히 모시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머니가 문 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귀찮다는 듯 인사도 하지 않고 존경도 표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바후뿟띠까 여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를 그만두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탁발도 할 수 없었고 그 외의 다른 소임도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도반들을 위해서 물을 끓이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되어 비구니가 되었으므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여생을 수행 정진에 몰두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법을 실천했다.

그녀는 너무 늙고 나약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행은 사원의 둘러쳐진 담을 짚어 가며 경행(經行, 걸으면서 하는 명상)하는 것이었다. 숲 속에서 경행할 때는 촘촘하게 우거진 나무들을 잡고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밤을 새며 정진하는 것을 신통력으로 보시고 광명을 놓으시어, 마치 그녀 앞에 앉아 계신 듯이 모습을 보이시며 이렇게 설법하셨다.

"설사 백 년을 산다 해도 '여래의 가르침(최상의 진리)'을 의지하여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이 게송이 끝났을 때, 그녀는 오온(五蘊)에서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를 보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녀는 노년에 출가했지만,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한 결과 아주 빨리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결국 자녀들의 배은망덕(背恩忘德)으로 인한 마음고생이 오히려 간절한 발심을 일으킨 원인이었던 셈이다.

쏘나 비구니의 구도역정을 보면, 천천히 걸으면서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如實知見)' 관법(觀法)을 닦아 마음을 쉰 후, 부처님 설법을 통해 단박에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단박깨침(頓悟)'이란 간화선이니, 위빠사나니 하는 수행법과는 무관하며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든지 오로지 마음이 쉬어(休)졌을 때, 스승의 법문 한 마디에 즉시 마음의 문이 열리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설법을 '법의 문(法門)'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 깨달음, 해탈, 열반을 찾고 구하는 '최후의 갈망' 마저 내려놓을(放下) 때, 사람마다 저마다 갖춘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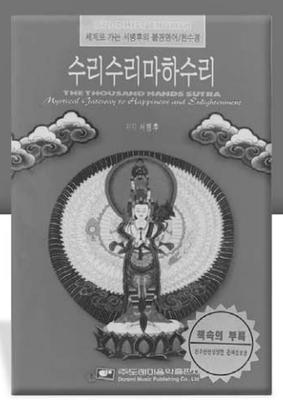
신행게시판

●불교입문 교육 등 강좌 개강=서울 불광사가 3개월 과정의 불교기본교육 강좌를 개강한다. 9월 22일 개강하는 아침반은 월 · 수 오전 10시, 저녁반은 월 저녁 7시 30분 강의가 진행된다. 20일 개강하는 토요반은 오후 3시 강의가 열린다. 동참금은 5만원. 불광선원 수행지도는 19일 저녁 7시 30분 본공 스님의 지도로 수행실수가 이뤄진다. 23일 개강하는 '<반야심경> <천수경>'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업한다. 10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 '간다라 미술기행-불교미술로 만나는 부처님의 생애'는 24일 개강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업이 진행된다. '불교로 읽는 노자'는 목요일 오전 10시 아침반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저녁반이 25일, 24일 각각 개강한다. '이미령과 함께 읽는 붓다의 일생'은 23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강의가 진행된다. (02)417-2551

●수선재 무료명상강좌=도심속 명상학교 수선재가 무료명상강좌를 개최한다. 서울센터를 비롯해 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서 동시에 열린다. 기초명상반은 토요일 오후 2시, 정진반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생반은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02)722-6653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미국 교육사업
전체 인수할 분 구함
◆학교명 : 국제불교대학교
· 법인등록 및 영업승인지역 : 미국, 괌
· 법인등록 2007년 1월 10일 등록번호 : D-15827
· 영업승인 : 2008년 2월 25일 괌
영업승인은 취득하였으나
경제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로 인수 할 분을 찾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 방문,
상담 등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경험이 계신분이면 좋겠습니다.
· 연락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번지
국제 불교대학교 한국교육원(연방사)
· 전 화 : 054)654-2464 / 010-9945-2030
국제불교대학교 이사장 주지 일봉 합장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고객 20,000원
대폭 할인서비스안내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책들을 1개월 동안
20% 할인 서비스 합니다.
● 기간 : 2008년(양력) 9월 8일 - 10월 7일까지 (1개월)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 ⇨ 4만원
"효타 비결서"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림. 정가 : 50,000 ⇨ 4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선지식을 찾아서

가네쉬와르 스님
(인도 쿠시나가르 마하파리니르바나寺 주지)

“좋은 생각을 하면 건강해 집니다”

부처님의 열반 성지에 세워진 최초의 현대 사원은 마하파리니르바나(Mahaparinivirwana, 열반당 열반사)다. 인도인이 아닌 미얀마 스님들의 원력에 의해 세워졌다. 1895년에 부지를 사들이고 7년 뒤인 1902년에 완공됐다. 그들이 사원을 짓고 수행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열반성지는 새로운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27년 지금의 열반당이 지어지는 과정에도 그 두 미얀마 스님의 역할은 컸을 것이다. 힌두교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국의 수행승들이 2500년 전 부처님이 <열반경>을 설하신 곳을 성역으로 되살렸다는 것은 사뭇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가을 하늘이 청명한 날, 용인 보문정사(주지 덕산)에서 만난 가네쉬와르 스님(73세)은 열반당을 복원한 두 스님 중 한 분인 찬드라마니 스님의 제자다. 찬드라마니 스님은 미얀마와 인도를 오가며 활동한 고승으로 1956년 암베드카르 박사가 인도의 힌두교도 10만명을 불교로 개종 시켰을 때도 힘을 보탰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그런 스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미얀마의 남부지역 ‘야카인’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가네쉬와르 스님은 14세 때 출가 했다. 영국의 식민지 아래 잦은 전란으로 불안하던 시절이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년이 인근 마을의 사찰의 도움으로 살다가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스뛰와 양곤 등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원 생활을 한 가네쉬와르 스님은 불교대학과정 등을 다 마친 25세에 인도로 건너갔다. 스승 찬드라마니 스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달려간 그 걸음이 쿠시나가르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 인연의 길이었다.

쿠시나가르 마하파리니르바나 사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인도어와 영어를 배워야 했는데 인도의 초등학교에서 꼬마들과 함께 글을 배우며 놀림도 받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장난이 나의 인내심을 키워주는 공부였다”고 회고하는 가네쉬와르 스님은 “1972년 스승님이 입적한 뒤 인도로부터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었다”고 했다. 그 위기를 극복한 열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원에서 법회를 꾸준히 하면서 공직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님이 미얀마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로 귀화하는 것이었다.

불교신자가 거의 없는 쿠시나가르에서 가네쉬와르 스님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다. 힌두교도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승려가 되기도 했다. 1980년부터 미얀마와 인도의 교류가 본격화 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고 1986년에는 인도불교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인도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쿠시나가르의 열반성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가네쉬와르 스님은 인도정부와 열반당의 공동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의 현대불교 운동을 주도해 온 마하보디 소사이어티(Mahabodhi Society, 대각회)의 최고의사결정권을 가진 운영위원 5인 가운데 한 분이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한국불자들과 인연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했다. 인도 성지순례가 확산되면서 한국불자들을 접할 기회도 많았고 열반당 인근에 한국사찰(대한사)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한국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스님은 “그런 인연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을 향해 아쉬운 점도 털어 놓았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불자들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명상(위빠사나, 참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데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가네쉬와르 스님은 열반당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도록 ‘고집’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스님은 “부처님의 열반성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누구나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

“세계의 종교 지도가 무슬림, 기독교, 불교 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포교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불자인데 자녀들은 절에 다니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한국을 비교적 자주 찾는 편이다. 그러는 동안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고 포교가 보다 활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스님은 열반당에서 발굴된 부처님 진신사리의 일부를 2006년에 용인 보문정사에 기증했다. 인도와 한국의 불교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였다.

“보문정사에 탑이 세워져 부처님진신사리가 봉안되길 바랍니다. 주지 덕산 스님은 제가 인도에서 인도의 의식대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은사인 찬드라마니 스님이 모시고 있던 진신사리를 기증한 것입니다. 쿠시나가르 열반당의 성스러운 기운이 보문정사로 이어졌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73세라는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해 보였다. 서류에 적힌 출생일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인 탓에 입국심사에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을 정도다.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

“좋은 생각을 하면 건강해 집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남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이 이치 속에 살면 행복해 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맑게 지니고 남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은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 값진 것입니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또 일하는 즐거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생각이 내적 동력이라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외적 동력이라는 것이다. 마하파리니르바나 사원에서는 가네쉬와르 스님도 철저히 노동을 한다. 또 새벽마다 제자들을 가르친다. 몸과 정신이 쉼 없이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본래청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자다. 그래서 가네쉬와르 스님은 복을 비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내부를 관조하는 명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쿠시나가르와 바라나시 사르나트 등에 6개의 사원을 관리하고 있는 가네쉬와르 스님은 불교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사찰의 형태로 학사와 기숙사를 짓고자 한다. 탑과 호수 등 한국식 조경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해 둔 상태.

“민족과 국가 종교적 편견을 다 버린 상태에서 누구나 들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부처님의 열반성지를 성스럽게 지켜 오는데 평생을 바친 가네쉬와르 스님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계에 고루 펴져 이 세상 전체가 성지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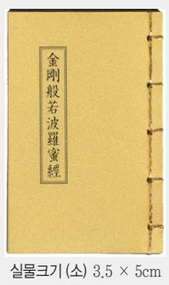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인도로 귀화해 스승의 열반당 수호 의지 계승
보문정사에 진신사리 기증, “탑 세워 봉안하길”





용인 보문정사 주지 덕산 스님, 가네쉬와르 스님, 미얀마 대사관 통역관 지수, 취재기자(왼쪽부터).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불량식 소장사 영가용 천도재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5 마서리태구이

마는 늘 푸른 약초 산약으로도 불린다.

학습능력증진·숙취해소·혈당저하·피부미용·정력강화·소화촉진·변비·설사·피로회복·요통·건위·동상·화상·유종·양모·갑상선종·심장염·유정(遺精)·유뇨증(遺尿症)·신체허약·폐결핵·당뇨병·대하증·자양강장 등에 효능이 있다. 특히 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소화불량·신경통·요통·건망증·시력장애·소갈·만성신장염·혈압정상화·염증제거·콜레스테롤제거·지혈·동상과 피부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유용한 생약이다.

학습능력증진 두뇌 발육에 좋아 수험생 간식으로 '탁월'

위벽 보호 '뮤신' 함유, 스트레스 노이로제에 좋은 건강식

마는 기억력을 돕고 학습능력을 높여줘 학생 건강식으로 호응이 높다. 숙취에도 효과가 좋아 음주 전 생즙으로 조금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오래된 마는 산삼의 효능에 비견될 정도다.

마는 식욕이 감퇴해 원기가 부족할 때 연밥·인삼 등과 함께 달여 먹으면 좋다. 당뇨병에도 매일 달여 장기간 차 대신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미용·해열 등에도 작용할 뿐만 아니라 두뇌 발육에 좋아 수험생 간식으로 탁월하다. 소화불량과 설사를 해결하고 기력을 증진시킨다.

마의 주요성분은 전분·당분(포도당·과당)·점액질(뮤신이라는 단백질)·글루코사민·타이로산·로이신·프루타민산·아르기닌 등 아미노산 및 소화효소 디아스타제 등이다. 뮤신 성분은 위액이 위를 부식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마 복용을 통해 뮤신을 섭취하게 되므로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성 궤양을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영양식으로 좋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노이로제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건강식이다.

<동의보감>에는 "마죽은 폐를 튼튼하게 해 기운을 돋운다. 생마 껍질을 벗겨 돌 또는 깨끗한 기왓장 위에 찧어 죽처럼 만들고, 이것 2홉에 꿀 2숟가락과 우유 1종지를 섞어 약한 불 위에 끓여 푹 익힌 다음 흰 쌀 한 사발에 넣어 잘 섞어 먹는다"고 적고 있다. 산촌 (02)735-0312



마서리태구이 재료 : 마, 서리태, 소금, 참기름.

만드는 법
① 마는 껍질을 곱게 벗겨 도톰하게 어슷썰기로 썰어 팬에 노릇노릇 굽는다.
② 서리태는 껍질을 까 팬에 볶으면서 소금으로 약간 밑간을 한다.
③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 소금참기름에 찍어 먹는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❾



대웅전 토지 불사, 템플스테이 발원



금강선원에서 만든 산상차.

가을이면 도량 앞 천여평 땅에 국화가 만발한다. 올해는 10월쯤 국화축제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을 듯 싶다. 노란국화 속에 가을 정취를 느낄 생각을 하니 벌써 가을이 그립다.

2007년 한국 템플스테이 지정을 신청했다가 아깝게 떨어졌다. 내용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시설 부족 때문이었다. 선을 좀 더 알리고자 작은 사찰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는데 안타까웠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 부분 보충과 함께 자연 체험 부분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큰절에서 못하는 자연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강조해 일반 사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참선과 같은 것은 큰절보다 작은 산사에서 더 멋이나니 말이다.

절 도량 대부분이 문중 땅이라 대웅전 토지 불사도 원을 세우고 기도하고 템플스테이도 원을 세웠다. 인연자가 나타나 원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뽕잎차도 이런 불사에 회향하기 위한 보시로 계속 만드는 중이다.

경주를 자주 찾는다. 배우고 수행하는 것에 기꺼이 내 수행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 중 경주에 가면 남산 칠불선원에 자주 들르게 된다. 남산 칠불선원을 찾는 날에는 꼭 뽕잎차를 들고 간다.

지난 동안거에 문을 연 이 선원에는 나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범허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다. 젊은 시절 불법에 정진하며 수행할 때 범허 스님은 내 미진한 점을 이끌어준 선지식이었다. 표충사에서 선원을 열 때도 내 옆에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던 스님이다.

범허 스님과 불국사에서 수행할 적에 경주 남산을 오른 적이 있다. 불교 성지라고도 불리는 남산의 수려함에 취해 산행을 시작했는데 범허 스님은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를 꽃 피웠던 남산에 수행공간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탄식 했었다. 그때 남산을 내려다보며 범허 스님은 "수행 도량을 만들겠다"는 원을 세웠나보다.

지금 남산 칠불선원이 위치한 곳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염불사터다. 유서 깊은 이 터를 보고 범허 스님은 수행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구참스님을 위주로 7분을 모셔 도량을 꾸몄다. 다행인 것은 염불사 쌍탑이 올 가을 복원된다는 사실이다. 그간 자리를 찾지 못하던 염불사 탑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 또한 부처님 가피다 싶다. (055)931-9590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❷ 홧병1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명상&마음치유 연구소

"내 생각은~" 감정↓ 긍정↑ 표현 '화' 줄여

행복한 삶을 위한 바른 '한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병원 상담 환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홧병을 예로 알아본다.

 # 홧병이란?

홧병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민간에서 사용되어오던 질병 개념 중의 하나로 울화병(鬱火病)으로 인식되던 질환이다. 특히 억울한 감정, 속상함 등을 풀지 못하고 장기간 누적시켜 발생하는데,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홧병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특이하게 우리나라 여성에게 많이 발병되며,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하던 한국의 어머니 세대에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 DSM-Ⅳ에서는 홧병을 문화관련증후군의 하나로 언급하고, 한국 민속증후군으로서 '분노 증후군(anger syndrome)'로 번역한다.

 # 화가 나는 이유

보통 화는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에 어긋나거나,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또는 어떤 대상과 비교해 거기서 오는 상실감 내지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 원인이 다양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감정의 원천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하겠지' 하고 기대나 집착하는 마음,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홧병의 증상은 주로, 피로, 불안,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함,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빈맥, 전신동통, 상복부의 덩어리감 등이다.

예를 들어 "울화가 치밀어서 못 살겠다"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울화'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나 한 맺힌 설움, 억울한 사연, 응어리진 일 등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는 가운데 생기는 화를 말한다.

 #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

'마음다스리기'에 대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오해다. '화'라는 불덩어리는 무작정 참는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하고 그 에너지를 표현해야 '화'가 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화의 적절한 표현 "I message"

대부분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화와 싸움으로 이어지면 상대방을 질책하는 대화가 오가기 쉽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왜 그렇게 밖에 못한거야?" "어떻게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등 이런 식으로 오가는 대화는 화가 제대로 발산되지도 않고 상대와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진다. 화가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이고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게 된다. 이럴 때는 조금만 표현을 바꾸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고 나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본다.

예를 들면 "당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행동했다면 내가 좋았을 것 같다" "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약속을 펑크 내니 내가 많이 속상하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이다. 사실 아주 조그마한 기술이지만 그 효과와 돌아오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화를 내는 본인이나 상대나 적절한 자신의 감정 표현과 입장 표명을 했기에 화는 쌓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이해하는 폭이 늘어나고 관계 개선이 긍정적으로 일어난다.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이 작은 기술을 알려주면 처음에는 "이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하다가 결과를 물으면 본인들도 다들 신기해 하며 기뻐한다. 내 표현이 달라지니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가 나오고, 시누이와 소통이 되고,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상사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고들 말한다. (02)576-7575 (계속)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재즈디바 웅산의 가을콘서트

문화일보홀서 19~21일까지

국내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그녀가 깊어가는 가을밤 'Autumn in Jazz' 콘서트를 연다. 서울 문화일보 홀에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리는 재즈의 향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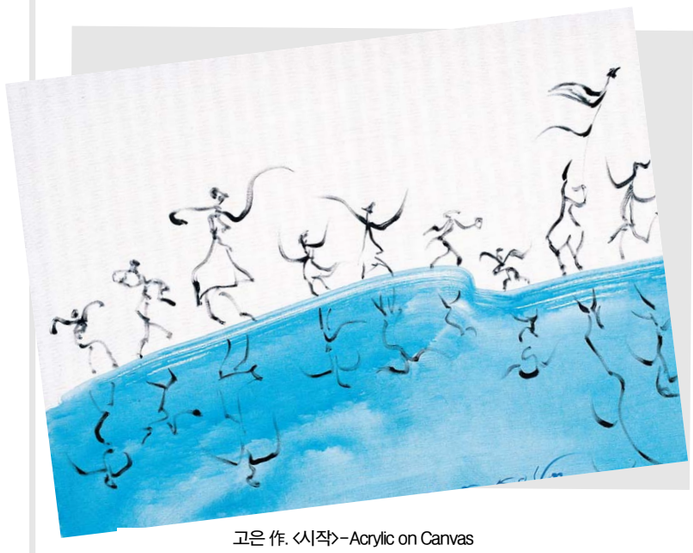
그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잿빛 묻어나는 섬세한 발라드에서부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리듬인 보사노바, 가벼운 어쿠스틱 펑키의 흥겨운 리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의 무대로 객석을 압도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콘서트는 명실상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웅산이 직접 프로듀서로 참여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웅산밴드와 합작해 완성한 4집 앨범 'Autumn in Jazz'를 선보이는 무대다. 우리가요 가운데 숨겨진 명곡과 더불어 그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된 팝송은 공연 내내 편안하고 아늑한 속삭임으로 깊어가는 가을밤 낭만으로 전해질 것을 기대한다.



웅산은 지난 봄 LG아트센터 전석 매진이라는 폭발적인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서 지난 7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음악인들만 설 수 있다는 일본 블루노트 무대에도 올랐다. 한국의 '재즈 디바(Jazz Diva)'라는 별칭처럼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재즈아티스트의 차원을 넘어 장르의 융합을 시도한다. (02)720-3933

가연숙 기자



고은 作. <시작>-Acrylic on Canvas

문학 50년 기념 그림展서 만난 시인 고은

붓으로 시를 그리다 동사를 그리다



"우리가 오늘의 감개를 계속 기억할 지라도 시인은 내일이면 오늘을 잊을 것이다. 내일의 감격으로 새로운 내일의 시를 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감격을 간직해 내일의 기억으로 보존하고자 한다."

1958년 등단 이래 시 · 소설 등 150여 종의 저서와 15개 언어로 30여종의 번역 시집을 출간한 문학의 거장 고은(75). 그의 등단 50년을 기념한 그림展 '동사(動詞)를 그리다'가 9월 12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선보였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35점의 작품과 먹으로 그린 삽화 · 붓글씨 · 병풍 등이 함께 전시됐다. 대한민국예술원(회장 김수용)에서 선정한 2008예술원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신작 107편을 묶은 시집 '허공'도 더불어 출간된 영광의 자리였다.

허공과 백지에 대한 시인의 천착은 무한의 캔버스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문학평론가 염무웅은 이러한 영역을 "인간적 해석 영역에서 벗어난 자유의 공간"으로 평가했다. 라르스 바리외 주한 스웨덴 대사는 축사를 통해 "고은은 한반도 유구한 역사의 에너지를 전하는 시인이자 화가다. 행동을 절제한 묘사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상상을 시도해왔다. 그는 시로서 불을 점화하고 독자를 통해 활활 태운다. 시를 통해 사회 전반 구조를 투영하는 작업을 펼쳐온 그는 대가중의 대가"라고 칭송했다.

문학의 영역은 선사의 선시처럼 단문으로 간결하다고 말하는 시인에게 붓끝의 형형색색은 고흐의 인상주의처럼 즉흥적이다. 연필이 아닌 물감을 붓끝에 듬뿍 찍어 생명을 드리운다. 시인은 "눈부시다"는 표현으로 감격을 대신하며 "강원도 두메산골의 가는 물줄기가 큰 강이 될 줄 몰랐겠지요. 더구나 그 강이 바다를 만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흐름은 하나의 무지입니다. 그런 자연의 무지를 본뜬 것이 나의 작업이 됐지요. 동료와 술자리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말한 것이 오늘의 법석이 됐지요"라며 특유의 어투로 동료와 가족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인이 스스로를 당돌하게 여기듯 그의 작업은 유채의 작업으로 화폭에 드리워질 것이다. 오늘은 내일의 연장이라고 강조하는 시인의 말처럼 "나는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그 어드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평생 화두다. 시인 고은에게 있어 시는 형상이 없는 그림으로 그림은 형상 있는 시로 반조되고 있었다.

글=가연숙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비공 스님의 현대선화 '道란道란' 展

9월 23일까지 종로 토포하우스에서

유채화를 통해 정화된 맑은 의식의 창.

비공 스님의 선화(禪畵) '道란道란'展이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감정의 유희 속에 슬쩍 드러나는 심상과 행위의 흔적을 캔버스를 무대로 종횡 무진한다. 도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경험들이 그림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구도자의 일상을 주제로 펼쳐진다.

온통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인간의 삶. 스님이 적지 않은 시간을 예술과 동행하며 소통하는 이유다. 신항섭 미술평론가는 그러한 스님의 예술 행위가 '보상 없는 자기실현의 방편'이라고 평했다. 스님에게 예술이란 감정의 무게를 더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해석이다. (02)734-7555

가연숙 기자

윤이상 음악이 그려낸 시대의 표상

17일 서울 시작 '표상' 주제로 4개 도시 순회공연

2008윤이상페스티벌이 시작되는 가을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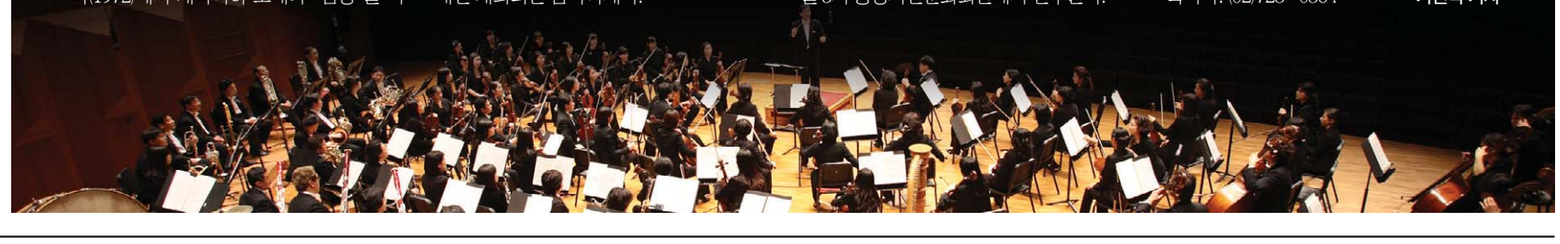
윤이상(1917~1995)은 동양 철학과 불교 색채를 바탕으로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인류 음악사의 거장이다. 독일 뮌헨올림픽(1972)에서 개막축하 오페라 '심청'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을 통해 전 세계에 큰 영향과 명성을 떨쳤던 음악가다. 지난 2005년 윤이상 서거 10주기 해에 설립된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 주최로 윤이상의 탄생일 9월 17일부터 서거일 11월 3일 사이에 매년 개최되는 음악축제다.

지휘자 정치용 · 첼리스트 고봉인 ·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9월 1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9일 오후 7시 30분 춘천 문화예술회관, 20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21일 5시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연주한다.

귀환 · 평화 · 음악을 주제로 명맥을 이어온 윤이상페스티벌은 '표상(表象)'을 테마로 인간 윤이상의 내면과 음악 세계를 조망한다. 윤이상은 한국 근현대의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하나의 표상이며 축제의 참여자는 비로소 시대의 비극을 매듭짓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집중됐던 윤이상의 삶을 인간과 음악으로 전환한다는 기획이다.

한편 윤이상평화재단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윤이상 선생의 자택을 '베를린 윤이상 하우스'로 개조해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이다. (02)723-0364

가연숙 기자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한글니까야독송회 "맛지마니까야" 독송 법회 안내

동산반야회 한글니까야독송회에서는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인 범어 경전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 · 쌍윳따니까야 · 맛지마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쿳다카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5부 니까야중 쌍윳따니까야 3권 독송을 마치며 가을 맞이 특강법회를 9월 〈부처님의 제자들Ⅱ〉과 10월 〈맛지마니까야〉 독송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맛지마니까야는 부처님의 〈수행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으며 모든 대 · 소승불교교리의 원천이 되는 가르침들과 반야부의 중심사상인 공과 중도사상의 원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제공	개강일시 및 장소	지도법사
부처님의 제자들Ⅱ (번역/오원탁)	9월 4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이미령 교수
맛지마니까야 Ⅰ (번역/전재성)	10월 2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동산한글니까야독송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
www.dongsanbud.net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농축액 (진액) 500g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울등보살 불등거사 <15>

구성 : 김흥인



동전을 둘로 나눈 형제 [백유경(百喩經)]



옛날 마라국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병이 매우 위중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 아들에게 분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재산을 잘 나누어 가져라." 아버지가 죽은 뒤 두 몫으로 재산을 나눌 때, 형이 아우에게 말했다.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때 어떤 어리석은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물건 나누는 법을 가르쳐 공평하게 가지게 하리라. 지금 있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부숩니까?" "옷은 반을 찢어 두 몫으로 만들고, 밥상이나 병도 부숴 두 몫으로 만들고, 돈도 부숴 두 몫으로 만들어라." 이리하여 모든 재산을 두 몫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그것은 마치 저 외도들이 분별해 닦는 것과 같다. 모든 외도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부숴 두 조각을 내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지다

최초조상(最初造像)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최초조상(最初造像)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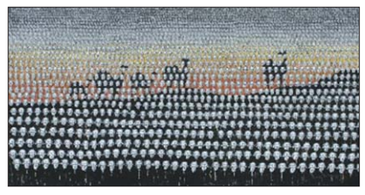
이 삽화는 석씨원류에 등장한다.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기 위해 천궁에 머물렀을 때 우다연왕이 부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불상조상을 발원한 우다연왕이 불상을 조상한 장면과, 부처님이 천궁에서 설법을 마치시고 중생 교화를 위해 보배 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불상을 조상한 우다연왕을 칭찬하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

본문에는 "<조상경>에 이르길, 부처님이 천궁에 계시면서 석달 안거 동안 어머니를 위해 설법했다. 이때 우다연왕은 목마르게 하늘을 우러르며 부처님을 생각하다 불상을 조상하기로 발원했다. 비수갈마천은 공인의 기술이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천신인데, 이때 몸을 변화해 장인이 됐다. 그리고는 부처님 탄신일을 기해 조상했다. 부처님은 삼도 중생 교화를 위해 보배 계단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때 모든 천신들이 보필해 따랐고, 그 위덕이 매우 성대했다. 그리고 광명이 빛났으니, 마치 보름달이 공중에 있는데 뭇 별들이 함께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범천왕이 흰 일산을 손에 잡고 부처님 오른편에 있었다. 제석천왕은 흰 불자를 지니고 왼편에서 부처님을 모셨고, 모든 천신들이 허공을 타고 내려왔다. 이때 허공에서는 음악과 묘한 향의 꽃비가 내렸고, 사대천왕은 미묘한 물건을 바쳐 부처님께 공양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우다연왕에게 말했다. '그대는 나의 법 가운데 최초로 본보기가 된 사람이다. 다시는 그대와 비등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믿음과 이익을 얻게 했고, 이미 획득한 복덕도 광대한 선근이니라.' 제석천왕이 왕에게 고했다. '부처님께서 천상에 계실 때 왕이 불상을 조상하는 공덕을 찬탄했다. 마땅히 스스로 기뻐하고 반가워야 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비단을 짜서 장식하거나 금·은·동·철·연·주석을 녹여 주조하거나 향나무, 옥석에 조각하거나 비단을 짜서 수를 놓아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거나 내지는 극히 작은 손바닥 하나 크기의 불상을 만드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온갖 큰 복의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변두리 작은 나라 땅에 하열한 종족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더럽고 사견을 지닌 빈궁한 집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인천세계 가운데 태어나 원만함이 뭇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모든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을 것이며,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고통 받는 과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온갖 죄가 소멸되어 갖가지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 불상이 조상되는 원인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정성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顧心



세상에
당신이 소유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뿐
네 마음을 비우면 이미 세상은 내 것으로 존재한다
비워라
네 마음을비우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신비롭다
나는 나 그것만이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이미 나인 것이다
비워라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온전하다.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카이로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마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기 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장 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전생 · 빙의 · 자기최면 · 치료최면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과정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 자기최면 / 타인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을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금주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특기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빙의퇴치 비법전수
신병 · 불치병 고쳐드림
30년 경력 혜봉스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역학무병건강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1.구궁 당 주역/간단 비법 전수
2.난치병(스트레스,비만,혈압,당뇨,암..)
근본치유 예방, 무병 건강 양생법전수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인촌 신불정사 무구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각종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산신용왕,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 신원확실
직장인, 공무원, 사업가
국제, 필리핀, 베트남, 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역학 빙의 퇴마 전문
빙의 퇴마와
퇴마 영원 퇴치법 전수
역학 실제 감정 위주로
속성 개인지도 출장 가능
도성암 도통 합장
010-7443-3060

적멸보궁 탱화
보통부적 100장
달마도 50장과 같은 효과
• 주문 : 10만원부터 이동식
화분납골묘 설치
수도권 일구 50만원 / 장지지 이구
110만원 나무 선택(특허출원)
465-02-403-194 이종남 (농협)
불교신협 080-510-2202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흥망성쇠 성질감정 조절지도 훈련
풍수명당, 시험합격 기도터 성지
운의 흐름 개운시기 전생 우울증세
장단기 수행 지도 단체 개인 훈련
불교강좌, 출가희망자 선발 공양주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010-7625-4455

사찰에서 숙식하실
공양주(55세~60세)및
종무원 사무원(여)
구합니다
▷ 경험자 우대
052)298-9911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충남
010-3191-9668

불사 같이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법랍 25년,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명리학,침구학,최면학)성업중
부산 경남에서 하고자 함
010-2945-7704

기도스님 모십니다
▷ 의정부 불암사
031)842-7684
011-353-7684

入山61년 雲水33년
이제야 비로소 入息 出息
自覺케 되었더이다
實參과 活句로써
전법 교화할
포교도량을 찾습니다
(대소불문)
011-9752-1080

사람은 누구나
다 如來藏佛임을 自覺하고
入息 出息 修行하면
無位眞人이 되어
이 오탁악세에 오히려
영원한 숨을 얻을 수 있으면만
011-9752-1080

神과 물질 그리고 권력
명예따위에 노예가 되어
世世生生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망상을 生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第一戒不殺生계의
심오한 뜻을 다시금 받아
지녀 了解토록 널리
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11-9752-1080

황토사찰에서 행 자 모 십 니 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묘각사
031)774-4760

산사에서 천일기도 발원스님과 공양주 부부 모십니다
011-696-8500

행자(35세아하) 및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17-570-2050
011-388-6275

부전스님 (비구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
055)552-5111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수 중 촛 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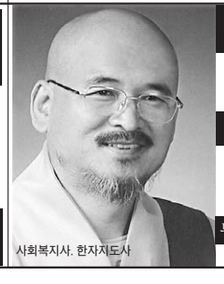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릇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 (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탈 종 공 고

● 승 번 : 012-0139
● 법 명 : 성주(이미경)
● 교 구 : 서울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
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패철 보는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 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 저. 표지본문 전체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사용법 강의 무료시청.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사주상담으로 고민하십니까?
이제 일주일 공부로 끝내십시오.
일주일 후 변화된 당신을 확인하십시오.
四柱비법 전수 (제 2기)
1.교육내용 : 사주, 신수 (월운 · 일운 · 시운)
성명학,택일,이사방향
2.일주일 과정 : 6박 7일, 숙식제공
◆ 개강 : 2008년 9월 22일(월요일) 오후 2시
◆ 종강 : 2008년 9월 28일(일요일) 낮 12시
3.교육장소 : 의정부시 소재 비룡정사
4.모집인원 : 10명(전화상담 후 선착순)
5.수 강 료 : 일백이십팔만원정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6.교육대상 : 스님, 포교사, 또는 희망자
▷ 별도모집 : 최면, 전생요법, 빙의퇴마, 과정
상담문의 : 031)842-8023 /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00미터 거리
비 룡 정 사 제 행 스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대가람)안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자연석 높이 15 M,가로 50M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기타건물 400평(6동)
● 대지 2500평, 임야 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 유곡, 주변 직벽암반 경관 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 가능(12M 도접)
● 가액 : 6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대지 : 1500평(건물-23평 방3개,주방1개,욕실1개)
● 고려청자만드는 황토흙(진주에서구입)으로 지은집입
바닥은 100가지약초를 석어서황토로 만들어서 아주좋음
● 석불(약사여래불), 사과나무230주(2년생), 소백산 도솔봉밑줄기에 약숫물 효험
● 단양온천들어가는입구로 산세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황토집
054)832-2794
010-6582-2588

전세금으로 (포교원건물인수)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부근
● 규모 : 대지110평 건평 약150평 2층 2동 1층상가2층
(법당약45평시설비약 3000만원)
● 2차선도로 코너건물 합7세대
(임대수익금 월120만원)
● 용도 : 포교원(사회복지시설적합)
● 가액 : 1억 5천 4백만원
010-9046-7006

최고의 참선도량

● 위치 : 산청 지리산 해발700미터 웅장한 일자혈 전망
● 계곡, 소나무, 기암의 임야 15000평 대지1000여평 등
● 양도가 : 5억원.
사진등 자세한것은 아래카페참조
cafe.naver.com/neobuddhism
011-312-2936
010-8652-8508
(정진 중이니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 요사2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대대리
● 관리지역 : 990평
● 뒤는 산, 주변 구교지 앞이 시원하게 트여 있음 시내권.
● 건축허가 내주는 조건 주변시세 절반가
● 가액 48,000만원
043)423-1101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돈의면
● 대지 450평(등기필)
● 기와법당 20평(2층)
● 요사채 40평, 창고 15평 옥외 화장실 6평
● 6층 석탑(제주 돌)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 방문시 절충가능)
010-3791-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 대지 200여평, 전 320평, 합 535평
● 임법당, 삼존불 등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도량신축가능 마당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 2억 5천(절충가) 전, 월세 가능
041)553-2108
011-794-404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전철역 옆
● 평수 : 약 40평
● 포교 최적지,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
011-526-0967

사찰및 요양원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국도에서 200m 도로는 포장 되있음.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8,479평 농림지역 38,294평 총 56,773평
● 단감나무 200주, 가건물 40평 지하수 200m
● 가액 : 5억 5천만원(급매)
017-570-1600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 대지 : 568평, 건물 3동(가건물)
● 특징 : 계곡접, 저수지 노송 풍수, 수려함
● 교통 : 대구시에서 20분거리 성주대교 7분거리
● 가액 : 1억 7천만원 (답사 후 절충)
017-804-1234
053)627-1234

사찰 터 안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260평
● 법당 23평(불사중)
● 요사채 33평 완공, 창고,산신각
● 가액 : 1억
(현재 1억5천만원 공사비 들었음)
010-3553-78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합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포교원 및 불교문화원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1호선 구일역 5분거리
● 평수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살림집 40평 (옥상 150평)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 도심포교 및 각종 불교문화 사업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억원 월120만원 시설비 1억 8천 (보시 절충)
02)853-6010
011-9405-8186

도심속에 예쁜 절같은 포교당

● 위치 : 부산 광안 전철역 3분거리
● 대지 : 약 100평 건평 1,2층 55평
● 가액 : 가격절충
011-345-51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8507-9909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대지 75평
● 목조한옥 30평
● 세면장, 화장실 별도
● 사용가능한대지 150평
● 가액 : 1억(절충가능)
010-7446-0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 동사무소 옆 (팔도시장)
● 건평:45평
● 즉시 법회 가능하며 살림할수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품비 700만원 (불상, 탱화, 살림집기 일절)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릉 2리 395번지 용담사
● 옛날 구옥 2채, 산신각, 미륵전, 와불, 삼존불
● 평수 : 400여평 도지 쌀한가마
● 가액 : 2000만원(건물만)
031)642-8345
016-9800-83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011-393-001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평수 : 약 40평
● 법당 20평, 방1, 공양간1
● 삼존불, 후불탱화 등 완벽하게 모셔져 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약 1,000만원
● 사정상 급 양도
010-2291-5558
051)503-0908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원 안내

● 위치 : 속초 중심가, 인구 밀집지역
● 전체평수 : 약 60평 (건물 4층 중 3층)
● 전체 황토로 잘꾸며진 시설 법당20평,방3칸,공양간,욕실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5,0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 가능
010-4631-7621

사 찰 안 내

● 위치 : 구미시 근교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연꽃, 연못 마당 잔디, 옆산
● 총 320평
● 임대보증금 300만원/1년350만원
● 양도도 가능. 1억 2천만원
017-813-91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92-9877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 동네 윗편 주용한 명당터
● 대지 209평, 전 64평
● (현)조립식주택,차량마당까지진입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6-537-6134
010-2208-4899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 작목면
● 바닷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 전 630평, 관리지역
● 입구까지 차량진입
● 가액 : 2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3850-8398
010-2208-489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가장 대변 입구 2주공 앞
● 2층 건물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답사후 절충 가능
051)721-8359
010-4870-83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장 지하철역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약 20평
● 평수 15평, 법당,방1,주방,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18만원 시설비 7백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0-4032-8133

공기좋은 산중토굴

● 위치 : 경북 영양. 마을에서 5분거리
● 글이나 그림 그리시는 스님,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께 적합
● 법사님 또는 일반 전원주택으로 사용도 가능(불자에 한함)
● 총 5,000평 중 임법당, 요사채 각 54평. 소일거리 농사도 가능
● 집기일체사용가능, 시설비없음
● 전세 : 3천만원
054)683-51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 : 1, 2층 약 45평
요사채 : 1, 2층 약 50평
대지 : 약 175평, 단청필
마당까지 차량진입
시내버스 왕내
● 가액 : 2억 2천만원(대출가능)
010-6298-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전 세

● 위치 : 부산해운대 반송
● 대지 7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전세 2억 5천
● 주차 50대 가능
010-9798-10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 4층 건물 중 4층
● 평수 45평, 시설 A급
● 시설비 17,000만원 보증금 800만원, 월 40만원
● 주차장 완비, 삼존불 완비
010-6416-5589
051)313-5589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7-373-5998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석포리
● 밭 3,200평. 백두대간 자락
● 포장 진입로. 약수 있음
● 가액 : 6천만원
* 토굴이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920-31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중부동
● 규모 : 53평(방3) 공양실 별도
● 시설 : 상단,산신,신중,영가당 (불상,탱화없음)
● 보증금 2000만원 월 45만원 시설 A급 시설비 없음
010-2599-602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755평, 법당 20평 요사채, 상하채 방4개
● 주차시설완비 큰창고
● 양도가 : 2억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두구동 근교
● 대지 : 680제곱미터(약210평)
● 법당 : 30평
055)372-3555
011-831-9667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부지 : 108평
● 법당 : 70평
● 요사 : 14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 부지 : 오천여평
● 시설 : 대웅전,자장전,관음전,삼성각,설송당, 자양당,요사채(건출 총 170여평) 잘 지은 집
● 환경 : 좌청룡 우백호 노적봉이 휘감은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의 명당자리
● 계획 : 실버복지원 납골당-토목공사 완료
● 가액 : 시세 50% 직거래, 답사 후 절충 결정
055)356-608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망우공원내
● 3층 건물중 1층 약 128평(주차장 넓음)
● 대지400평 텃밭 5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48평)방5, 거실, 욕실, 주방및 공양간 대형에어컨, 엠프시설 완비 비품일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 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 비품일체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010-3382-7921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
010-4782-2112

사찰(급)안내

계약후 불사하며, 분할도 가능
● 위치: 경북 고령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 800평 건평 약 80평
● 법당 25평, 삼존불, 방 7개 대형주차장 약 400평
● 노인요양원 및 영옥 사리불 안치 준비중
● 양도가 : 융자 9700만원 안고 2억 5천만원 인수 총액 4억 5천만원 중 1억 찬조보시함 (진정하게 운영할분)
053)471-3123
017-501-2315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우암산 중턱
● 대지 평수 : 60평
● 건축면적 : 1층+2층=총70평,리모델링 건물
● 특징 : 도심 10분거리, 시내조망권 좋음 산책로 공기좋고, 우암산물 공급되는 수도 확보
● 가액 : 3억 5천(대출금 5천 5백포함)
● 현재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 도량임
● 참고사항 : 도심포교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스님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공원 등 여건 좋음, 즉시법회가능
연락처 016-401-6254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버스정류장 앞, 부평시장 역세권
● 평수 : 120평, 방 3, 창고방 1, 창고 1,
● 공양간 大, 주방 2, 화장실 2, 삼존불, 지장소불 120불
● 시설 최우수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2)519-1108 / 010-4545-110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거리 대로변 포교 최적지
● 면적 71평 5층건물중 3층
● 법당 40평(전체 단청,운각,각단,고급원목,엠프시설)
● 방2,해우소2, 공양간,후원,모든시설 최상급
● 시설비(대폭조절가능-공사비1억 4천만원) 보증금 월세 조절가능
051)554-6611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⑰

모든 선악의 근본은 제육의식

六意知法中修止觀相 如初坐中已明訖 自上依六根修止觀相 隨所意用而用之 一一具上五番之意 是中已廣分別 今不重辨 行者若能於行住坐臥見聞覺知等一切處中修止觀者 當知是人眞修摩訶衍道 如大品經云 佛告須菩提 若菩薩行時知行 坐時知坐 乃至服僧伽梨 視?一心 出入禪定 當知是人名菩薩摩訶衍

여섯 번째로 의근으로서 지관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의식은 색성향미촉 등 전오진이 의식에 떠오른 낙사영자(落謝影子)인 법진의 모습을 인식한다. 이 문제는 이미 앉아서 지관을 수습하는 장에서 자세히 밝혔다.

다섯 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다섯 가지란 아홉 가지 인연가운데서 명(明), 공(空), 근(根) 등 세 가지 인연과 분별의연(分別依緣)을 제외한 경(境) 작의(作意) 근본의(根本意) 염정(염정) 종자(種子) 등을 말한다.

의식은 세력의 작용이 다른 식보다 광대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없이 보편하게 일체법을 인식하여 삼경(三境)에 두루 통한다. 또 의식은 삼량(三量)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의식을 훌륭하게 사용하면 팔식 망상을 전환해서 사지보리(四智菩提)를 이룰 수 있겠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보리열반이 전환하여 번뇌생사를 이루게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의식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선의 뿌리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생이 생사로 윤회하느냐 아니면 열반의 안락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이 의식의 작용에 의할 뿐 다른 물건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인식대상인 삼경을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경(性境)이다. '성'은 자체성질이라는 의미이다. 안식으로부터 신식에 이르기까지 전오식과 제팔식이 인식하는 색 등 오진인 실재경계의 모습에서 그 대상에 대해 명칭과 언어를 일으키지 않고 계산하고 헤아리는 마음도 없이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식한다는 뜻에서 성경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독영경(獨影境)이다. 영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모습인데, 이는 상분의 다른 명칭이다. 그것은 허공 꽃, 토끼 뿔처럼 명칭만 있을 뿐 실재가 없는 것과 과거 미래에서 환상 변화로 나타난 제육의식의 상분경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실재 종자가 없이 독자적으로 의식 속에서 나타난 상상으로 구성된 경계를 독영경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대질경(帶質境)이다. '대'라는 것은 함께 끼고 합한다는 뜻이고 '질'은 체질의 의미이다. 이 경계는 본질 상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을 실재와 같이 살피지 못하고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육의식을 훌륭하게 사용하면 열반증득
잘못 사용하면 끝없이 번뇌 생사로 유전

예를 들면 제칠식의 견분이 인식하는 상분 그림자는 제팔식 견분인데도 그것을 주재하는 자아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이다. 또는 제육의식이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삼경을 인식하는 삼량은 현량(現量) 비량(比量) 비량(非量)을 말한다.

현량(現量)은 환하게 드러난 것을 헤아리는 것인데, 전오식이 목전에 환하게 나타난 오진경계를 마주하였을 때 자체모습 있는 그대로를 분별없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비량(比量)은 과거에 인식했던 것과 현재를 서로 비교해서 추리하고 헤아려서 인식해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장 밖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아래에 불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비교 추리해서 아는 경우이다.

비량(非量)은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말한다.

삼량은 육식이 분별하는 인식의 주체이고, 삼경은 인식 대상의 경계가 된다.

앞에서는 이미 열거했던 육근가운데 각자마다 육진경계를 마주한 상태에서 지관 수행을 하는 방법을 말했다. 이를 의거해서 말해본다면 그 숫자가 여섯이기는 하지만 본성 자체 가운데는 여섯이라는 간격이 본래 없다. 왜냐하면 본성 가운데서는 육근의 작용을 통일된 모습으로 알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육근으로 간격이 막히지 않는 하나의 본성을 본래 가지고 있어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항상 육근을 통해서 지혜를 발하여 선악과 주관 객관의 상대적인 모습을 본래 얻을 수 없지만 단지 중생은 이 같은 본성을 미혹하여 번뇌의 장애를 받을 뿐이다.

결국 본래 있는 진심이 간격이 없는데서 간격이 생겨 내 마음의 보리 열반을 위배하게 되어 보는 것은 색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귀는 소리를 듣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가령 색을 보아도 보는 마음을 돌이켜 자성의 색을 보고, 소리를 들어도 마음을 돌이켜 자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육근 가운데서 하나의 근만 근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머지 오근 모두 동시에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엔 안근이 색을 볼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감촉을 느끼는 등 모든 육근의 작용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육근가운데 하나의 근이 모든 육근의 작용을 동시에 걸림없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열반경'에서는 "여래는 하나의 근으로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구별하고 감촉을 느끼고 일체법까지도 안다"라고 하였다.

하나의 근이 그렇다면 나머지 근도 역시 이와 같다. 이것이 바로 육근이 상호간에 걸림없이 작용하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아나율타 존자는 눈이 없었으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발란타용존자는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었고, 극가신녀는 코가 아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며, 교범발제는 혀가 없어도 맛을 알았으며, 순야다신은 몸이 없어도 감촉을 느꼈으며, 마하가섭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지혜가 원만하고 총명하여 명료하게 알았다. 이러한 사례 등이 육근이 걸림없이 작용한다는 증거이다.

마하연은 대승을 의미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전일하게 지관을 수습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대승의 도를 진실하게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대품반야경'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기를 "보살이 행할 땐 행할 줄 알고 앉을 땐 앉을 줄 알며 대가사를 입거나 눈으로 살피거나 깜짝하는 순간에도 지극한 일심으로 선정에 출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량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일심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심이란 두 마음이 아님을 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정에 안주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걸어가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어서 행주좌와 견문각지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정을 이룬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리이타를 행하는 보살 가운데 대보살인 보살마하살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팔계(十八界)

(3) 십팔계는 무아아소(無我我所)

오온과 십이처 밖에 십팔계 법문을 수립한 이유를 다시 총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온과 십이처가 무아이고 무아소임(無我我所)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세계는 오직 중다한 사물이 존재할 뿐, 주관적인 심식이란 따로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유물론(唯物論)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물질의 부산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십이처 법문에서 설한대로 일체의 모든 인식활동, 즉 육식이 육근과 육경을 의지해서 그것을 상호보조촉진작용으로 깔고 일어나면 육근과 육경이라는 두 성질의 물질이 없으면 육식도 바로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식활동은 육근과 육경을 하나로 의지한 처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식활동은 본래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존재해야만 그것을 의지처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이 우리의 심식활동을 조성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오직 물질만 있을 뿐, 심식은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리석음을 타파하려고 부처님은 십팔계 법문을 따로 설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계'는 종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체제법은 각자 자체의 종자가 있어서 그 자체의 종자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사물을 의지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곡식을 심을 경우 곡식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까지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알맞은 토양, 비료, 따뜻한 날씨, 비, 이슬, 사람의 노력 등 여러 조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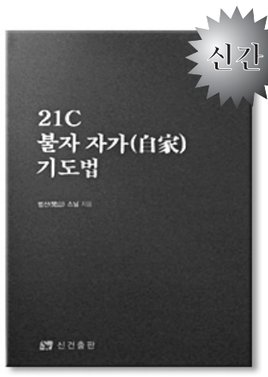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곡식은 생장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여러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도 그 근본인 곡식종자가 없다면 곡식은 생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처님께서는 일체제법의 종자를 우리의 제팔식 가운데 함장하고 있다 해도 그 종자는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인연, 즉 안근 또는 색경을 상호동시적인 보조인연으로 의지해야만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려고 십이처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체제법은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 다시 말해 육근과 육경만 갖추었다 해서 그것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제팔아뢰야식에 함장된 제법 자체 종자를 동시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제법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따로 십팔계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株)天星建設
석·납골당
석·굴법당 전문
석·납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까다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옷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卍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宗團 名稱 變更 公告
대한 新불교 조계종
• 舊名 : 한국 선불교 삼매종
• 新名 : 大韓 新佛敎 曹溪宗
금번 종회의원 정기총회에서
宗團名을 변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이에 公告 합니다.
변경일시 : 서기 2008년 8월 10일
총 본 사 : 055)673-3474
大韓 新佛敎 曹溪宗 總本山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216번지 영락사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다면 바른 생각 돼”

<18>심성론(心性論)의 불(佛)·유(儒) 회통론과 거사들(2)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가 사상을 결합시킨 양숙(梁肅) 거사의 ‘복성명정론(復性明靜論)’을 계승해 보다 발전시킨 사람은 이고(李翺) 거사이다. 이고(772~841) 거사는 <복성서(復性書)>를 지어 유명하다. <복성서>에는 유불회통(儒佛會通) 사상이 매우 농후해 그의 스승이며 철저한 배불론자인 한유(韓愈)의 한탄을 자아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고 거사는 자(字)가 습지(習之)이며, 롱서(隴西; 현재 甘肅省 渭源)사람이다. 거사는 학생시절인 정원(貞元) 9년(793) 9월 주부(州府)에서 공거인사(貢擧人事;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행사)를 시행할 때 양숙 거사와 첫 대면을 했다. 양숙 거사는 이고에 대해 ‘서로 통하는 도가 있다’고 평가해 가르침을 주지만, 아쉽게도 그해 11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러나 2~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사사는 이고 거사에게 스승인 한유보다도 더욱 깊은 영향을 줬다. 그 후 거사는 양숙 거사를 추모해 <감지기부(感知己賦)>를 지었다. 이후 정원 14년(798), 이고 거사는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올랐고, 낭주(朗州)자사, 예부랑중, 형부시랑 등의 고관을 역임했다.

이고 거사 대표작 ‘복성서’서 유불회통 잘 드러나

‘복성서’ ‘성품회복’ 논리 선종 ‘명심견성’과 유사

태화(太和) 9년(835)에 양주(襄州)자사 및 산남동도절도사(山南東道節度使)에 임명됐고, 그 임지인 양주에서 생애를 마쳤다. 거사는 딸만 7명 두었고, 외손(外孫)대에서 재상을 3명 배출했다.

이고 거사의 유불회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대표작 <복성서>이다. <복성서>는 모두 세 편으로 구성됐다. 상편은 성정(性情) 및 성인(聖人)에 대한 총론이고, 중편은 수양하여 성인(聖人)에 이르는 방법을 평론했고, 하편은 사람들에게 수양을 권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편에 걸쳐 공맹(孔孟)의 도통(道統)을 회복할 것을 호소했고, <주역(周易)>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으로 주요 전거를 삼았다. 거사는 이 책에서 정(情)을 버리고 ‘성품을 회복[復性]’하는 것을 취지로 했고, ‘헤아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弗思弗慮]’ 정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복성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표면상으로 본다면 이 책은 유전(儒典)을 근거로 해 유가의 용어를 사용하며, 그 목적도 공맹의 도통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깊이 사상 내부로 들어간다면 어렵지 않게 이 책의 사상 및 표현방식이 불교의 불성론(佛性論)과 상당히 접근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성서>의 귀결점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인(聖人)을 이루는가를 가르치는데 있다. 거사는 “인간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성품’은 결코 성인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이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성인과 범부의 구별은 성품이 있고 없음이 아니다. 성인은 천명(天命)의 성(性)을 얻음에 있고, 정에 끌리지 않고, 범부는 그와 반대로 정에 빠져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해 끝내 그 성품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마치 물의 성품은 항상 맑지만 모래와 진흙 등으로 오염돼 혼탁해지는 것과 같다. 만약 “모래가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흐름은 맑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성인도 바로 그와 같아 정에 미혹되지 않는 그들은 성품이 항상 청명하다고 한다. 어떻게 정에 미혹되지 않는가에 대해 거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불사불려(弗思弗慮)’를 제시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이 혼미하기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 성품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그 방법을 묻겠습니다”라는 물음에 이고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다[弗思弗慮]면 정념(情念)은 생하지 않는다. 정이 생하지 않으면 바른 생각이 된다. 바른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어찌 다시 성품이 삿됨을 일으키겠는가? 모든 것이 고요한 때 마음에 헤아림이 없음을 아는 것이 제계(齋戒)이다. 본래 헤아림이 없음을 알아 움직임을 모두 여의어 적연부동(寂然不動)한 것이 지성(至誠)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지성’은 바로 인간의 성품을 다할 뿐 아니라 사물의 성품도 다하고 있어, “천지의 생성발육을 도우며, 천지와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부터 <복성서>의 사상은 선종(禪宗)의 ‘이념(離念)’ ‘무념(無念)’ 나아가 ‘무상(無相)’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송(宋)의 석실조수(石室祖琇) 선사는 <융흥불교편년통론(隆興佛教編年通論)> 권24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복성서>를 배우는 것은 불경의 개요를 얻는 것이다. 다만 문자를 달리 했을 뿐”이라 말했다.



그림 · 김흥인

이고 거사의 사상에 불교가 깊게 스며들었던 원인은 양숙 거사와의 인연뿐 아니라 다양한 선사(禪師)들과의 인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4는 거사가 낭주자사로 있을 때 약산유엄(藥山惟儼) 선사를 친견해 오도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한다.

거사가 유엄 선사를 처음 만났을 때, 선사는 경전을 보며 못 본 체 하자, 거사는 “직접 대해 보니 소문에 듣기보다 못하다”며 떠나려 했다. 그때 선사는 “태수는 어찌 귀만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깁니까?”라고 반문하자 거사는 합장하며 “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선사는 손으로 위와 아래를 가리키며, “알겠습니까?”라고 묻자 거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선사가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거사는 크게 깨닫고는 게송을 하나 읊었다.

“몸을 단련해 마치 학의 형상과 같고, 천 그루의 소나무 아래 두 함의 경전을 두고 있네.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아무런 말이 없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하네.”

게송을 마치고, 거사는 다시 선사에게 “어떤 것이 계정혜(三學)입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빈도(貧道)의 이 처소에는 한가한 살림살이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니 거사가 헤아리지 못했다.

선사는 “태수는 이 일을 잘 보임(保任)하십시오. 앉을 때는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앉고, 행할 때는 바다 속 깊이 밑바닥에서 행하십시오. 침실 속의 물건은 버리지 않으면 바로 새어나옵니다”라고 설명했다. 선사가 밤에 산을 올라 경행(經行)하다가 홀연히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을 보며 크게 웃으니, 예양(澧陽)의 동쪽 구십 리까지 울려 퍼졌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선사에게 찾아와 물으니, 거사가 옆에 있다가 “그윽이 머물 곳을 골라 얻었으니 들에서 당신(약산유엄) 뜻에 맞으리. 평생토록 사람이 와도 맞이하고 전송하는 법이 없는데, 어느 때는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에서, 달 아래 구름을 헤치고 한번 크게 웃는다”라는 시를 읊었다.

<전등록>에 보이는 이 일화로부터 약산 선사는 이미 거사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거사와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당주(唐州)의 자옥(紫玉) 선사, 서당지장(西堂智藏) 선사, 아호대의(鵝湖大義) 선사 등 동시대의 여러 뛰어난 선사들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복성서>에 보이는 ‘성품의 회복’이란 논리가 선종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의 논리와 유사한 원인이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거사의 반연은 유불회통론에 있어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양숙 거사와 다른 측면이 나타나게 했다.

양숙 거사는 형계 대사로부터 천태학을 배웠던 까닭에 천태학을 중심으로 유가와 회통을 이뤘지만, 이고 거사는 선종의 선사들과 인연이 깊어 선종 선리(禪理)를 중심으로 유가와의 회통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사의 사상을 후대에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한 주희(朱熹)는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다만 불교로부터 나온 것” “지극한 도리를 설하지만, 불교와 유사할 뿐”이라 비판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의 깨달음을 증득하고 불교에 심취했던 이고 거사는 당시 불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남북조시대부터 출현한 재회(齋會)가 당대에 와서는 점차 화려하고 성대해짐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한 이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 국가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재회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거사는 불교의 재회를 없애자는 의미인 <거불재(去佛齋)>를 찬술해 재회의 폐단을 비판했다. 이 저술을 세밀히 분석하면, 거사의 의도는 불교 본연을 잊고 지나치게 복록을 탐하는 불교도 비판에 있지 불교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불교와 유가의 사상적 회통을 이룬 거사의 <복성서>는 이후 성리학을 비롯한 중국의 사상적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줬다. 또한 불교, 특히 선종에 있어서도 선리(禪理) 전개에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끼쳐 <거사전> <불법금탕편> <송고승전> 등에 외호거사로서 평가됐고, <전등록> <조정사원(祖庭事苑)> 등의 선종사서에 그의 전기와 사상들이 실렸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한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 무 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 사 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 사 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 영 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 리 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 약 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 사 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 사 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그냥 주인공에 다 놔버리시고 편하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나는 이날까지 거짓말까지 해서 중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해서 차원이 높아지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름을 가지려고도 안 했습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까닭에 하는 것이지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빛나거나 이름이 높아질 걸 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걸 잘 먹고 입을 걸 잘 입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현혹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면 뭘 하겠습니까? 그 죄는 어디서 받고요. 또 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내가 그렇게 다 받더라도 여러분만 잘 살 수 있다면, 물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들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여러분이 모두 다 평화롭게, 그러한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상세계로만 된다면 나는 아무 흔적도 없는 가루가 돼서도…, 난 그렇게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반야즐이라도 쥐고, '내 자부처가 나한테 있다' 하고 쥐고 나가기만 하셔도 그거는 반 이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기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말들을 했으니까 오늘 질문해 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스님, 안녕하십니까? 진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2, 3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네 번이나 났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번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많이 상했는데 제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마는 제가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스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위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너를 공부시키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눈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제가 관(觀)했었습니다. '주인공, 이거 바닥이 매우 미끄러운데 절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이끌고 가라'고 관한 지 한 5분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많이 상했는데요, 마음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아, 그래,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지만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금요일날 진주에서 법회를 보고 선원에서 나오다가 인사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술 먹으신 분이 그냥 갑자기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리를 약간 다치셨는데 병원에 가서 X-RAY 찍고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관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안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사고가 나야지만이 나하고의 그 인연이 해결이 되니까 더 잘되기 위해서 사고가 난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스님께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스님 아까 상점 하는 얘기 했죠. 본인이 사고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너만이 사고 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항상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지, 사고가 닥치고 얘길 하면 벌써 이미 차는 지나가. 그래서 아침마다 관하고 타라. 또 저녁에 내릴 때 감사하게 관해라. 그 차도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차도 들어요. 차도 듣고 안의 주인공도 듣고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자부처는 자기를 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요. 그럼 알게 돼요.

질문자1(남) 그런데 스님, 그저께 난 사고도, 제가 밤눈이 좀 어둡기 때문에 밤에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앞이 잘 안 보여 갖고 '아, 이상하다.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이거 참, 주인공 잘 이끌어 가라.' 고 그렇게 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스님 그것을 한번…,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내가 이러고 했는데 왜 이럴까?' 하고 마음이 얼떨떨해서 약해지거나 이런다면 안 되죠. 자기 뿌리와 자기 싹인데 어찌 된다고 해서만 믿고, 안 되면 안 믿겠습니까? 진짜로 믿어야죠. 그래 이거 공부하는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질문자1(남)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스님 그럼, 자꾸 해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당신으로 인해서 남이 다치거나 또 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거나 하더라도 죄 없이 맞은 매는 빨리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려 내가 맞았으면 '저 사람 수고를 시켜서 나를 사람 되라고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다면 좋을 거예요.

질문자2(남) 예, 저는 안양 본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님 말씀과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스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서 무척 안달복달했었는데 제가 오만해지는 건지, 아니면 신심이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스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요즘은 뭐 굳이 스님을 친견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연찮게 아주 영광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님께서는 현세에서 '고'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비(慈悲)라는 그 한자를 풀어 보면 자는 바로 '사랑 자(慈)'이고 비는 '슬플 비(悲)'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바로 자애로움만 갖고는, 물론 저도 깨치지 못한 중생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자애로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끔할 정도의 어떤 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악감정이 없이 비록 중생에게는 당시에 그게 고통일지라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되 함이 없는 그 비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얼마나, 또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간 정도 그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끝없이! 끝없이, 함이 없이 모두 하고들 가십니다. 이건 현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하고 가고 있어요. 함이 없이 하고들 가세요. 보는 사이도 없다. 보는 사이 없이 봤다. 금방 넘어가니까, 딴 거 봐야 하니까. 들은 사이 없이 또 딴 걸 듣는다 이럴 땐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무슨, 지속된다 지속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이 흘러 돌아서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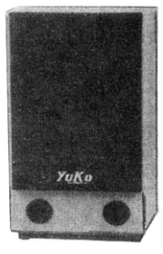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알립니다.

자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 불교 각단예불 및 천도제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수강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준비물 : 필기도구, 녹음기

수강료 : 월 10만원

교육장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헌스님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buddhanews.com

끝없이! 끝없이, 함이 없이 모두 하고들 가세요!

☞25면에서 계속

그대로 끝없는 거죠. 끝없는 그 까닭에 바로 교차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즉, 차원이 높아지느냐 더 낮아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활이 주어지죠. 삶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질문자2(남) 마지막으로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AL기가 떨어진 괌이라든가, 또 KAL기는 아니지만 비행기 추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은 캄보디아라는 곳이 과거 일제 시대 때 정신대 할머니들이 많이 끌려갔던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천을 방황하고 있는 원혼들이, 바로 그분들이 거기에 끌려가셨다는 것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연이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할머니들은 바로 스님 연배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스님이 마음을 내셔서 구천을 방황하고 있는 원혼들을 제도해 주시고, 현재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이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님께서 원력을 좀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그 죽은 사람들이 과거에 끌고 간 놈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항상 돌아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서도 그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왜냐? 그건 한 번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됐으면 그 이미지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다시금 돌려서 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죽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고 하는데 이 이유는 50% 정신계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한번 그렇게 바꿔 생각을 해 보십시다. 거기 끌려간 놈이나 끌고 간 놈이 있다면, 끌려간 놈은 끌고 가는 놈이 되고 끌고 간 놈은 끌려가는 놈이 되고,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선 '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질문자2(남) 예. 한 가지 제가 덧붙이겠는데요, 그 정신대 할머니들은 그런 고통을 어느 정도 종교적인 걸로도 많이 승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연을 맺은 끌고 간 사람들,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혼의 구제가 미쳐야 되지 않는가, 당장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떤 인연된 한마음 공동체라면….

스님 말로만 종교를 믿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셔도 이 정신계의 공부가 없어서 정신계의 뜻이 거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벗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짚으시며)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럼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입력을 없애려면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죠? 그런데 그 입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모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로 인해서 업이 될 때에는…, 누구나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계의 50%를 같이 봐라 이러는 거죠.

우리 신도님들 중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신도님의 일가, 신도님들의 형제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사고가 나니까 이 형제분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도 전깃줄이 닿아야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게 하죠. 그렇건만도 그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선 가끔 연기법으로써 그걸 해결을 하시죠. 하여튼 생각을 잘하고 잘 살아요.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종교가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닌 거를 알게 돼요.

자기 뿌리와 자기 싹인데
어찌 된다고 해서만 믿고, 안 되면 안 믿겠습니까?
진짜로 믿어야죠.

질문자3(남) 스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원의 선근회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탑공원에 조상님들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조상님들은 지금 부여에 있는 공동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천도재를 선원에서 여러 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천도재 한 부분과 공동산에 모셔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자신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네가 지금 전세 사는 거와 같으니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비록 전세는 살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지녀서 참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2년마다 자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재는 했다고 하나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탑으로 모실 마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지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많이 반대를 하시고 일반 산에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육신은 두고도 혼을 전부 들어서 탑으로 모실 수도 있느니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스님 왜냐하면 거기가 3분의 1 조금은, 그건 뭐 치지도 않겠지만 반 이상이, 즉 남의 땅으로 돼 있거든. 안 그래요?

질문자3(남) 지금 현재 공동묘지로 돼 있습니다.

스님 그래.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지. 그거는 요만큼 그저 셋방살이지 그게 자기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모두 셋방살이야, 셋방살이. 허허허…. 그런데 만약에 조상들 영령을 건져서 탑에다 모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댁이 마음에서 좋으니까 영령들의 마음도 좋고, 그 영령들의 마음이 좋으니까 댁도 좋게 되는 거지, 한 염주알이니까. 부모들은 자식이 사 준 집에서 사는데 자식은 셋방을 산다 이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소? 어떠한 마음이라도 내서 좋은 일이 되게끔 해 주실 거요. 나는 죽은 사람 따로 치고 산 사람 따로 치지 않아요.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저의 현실에서는 5대조부터 전부가 다 계시기 때문에 집안 친지분들이 모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탑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시죠. 제가 마음도 많이 내면서 하지마는 흐름이 같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스님 그것은 다 그냥 놔두고도요, 위패를 써서 다라니에 싸서 영령들만 모시면요, 거긴 빈터가 돼 버려요. 육신은 사대(四大)로 다 가잖아요? 온기를 좇아서 가고 물로 좇아서 가고 흙으로 좇아서 가고 바람으로 좇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흙 속이라고 바람이 없는 줄 아세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다 썩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시고 팔자 좋게 사세요. 허허허…. (대중 웃음, 박수)

사회자 끝났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그럼 내가 아까 그 얘기 길게 하지 않았으면…, 질문할 분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사회자 세 분….

스님 그런데 한 분….

사회자 세 분 했습니다.

스님 그것만 하고는 나더러 내려가라고 그러려고 그랬느냐고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되기 어렵고, 부처 되기는 더욱 어렵고, 진짜 부처가 돼서 평등공법으로 삶을 살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거를 그렇게 해 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애를 쓰면 병고예요, 또. 허허허…, 애를 쓰지 않아도 안 되고 애를 너무 써도 안 된단 얘기죠. 그대로 자기 생긴 대로, 그대로 자기 모습대로, 또 분수대로 다 살면서 (가슴을 짚으시며) '오직, 그놈이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구나!' 하는 거, 그것을 진짜로 아신다면 그저 급할 때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넣으면 바로 화해서, 딴 걸로 변해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 생활 자체가 심성과학이니까요.

과학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무슨 물질과학 정신과학 이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성과학이에요. 과학 아닌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묘하게, 이거 보면 저거 보게 되고, 어떻게 묘한지 이 말 하곤 또 요 말 하고, 아버지 노릇 잘하고 남편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하고 사위 노릇 잘하고, 형 노릇 잘하고 아우 노릇 잘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심성과학이지 뭡니까? 모두가 과학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벼를 심어서 추수해서 까서 밥해 먹는 거 보셨죠? 허허허…. 못 보셨습니까, 모두? 그것이 다 과학이에요. 과학 아닌 게 어디 있나요? 물질과학으로 자꾸 하려니까 과학 과학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과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물컵을 짚어 보이시며) 이 구멍이 한 털구멍이라면, 이 털구멍 하나가 만약에 자불(自佛)이라면 이 세상을 다 넣어도 남음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털구멍 하나에.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다 집중해서 다, 그저 생기면 여기다 넣고 생기면 여기다 넣고, 그러면 붙을 게 없고 집착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멸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뭐. 그냥 모두 한 털구멍에 다 넣어 버리는 거와 같이 바로 자기 자불에, 자불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주인공에 다 놔 버리시고 편하게 사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암에 걸렸다고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들 해요, 모두. 그래 가지곤 의사한테 매달리는데, 그게 바깥으로 끄달리는 거죠. 의사한테 100% 다 그냥 매달리고 비비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반은 분담을 해서 의사 반, 나의 마음 반,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싹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의사도 자부처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그것도 또 딴 손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주인공은 뭐 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름을 불러도 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요, 글쎄. 그러니까 자기가 색경을 보면 자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색경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믿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지,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自神)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신! 자신이 어려서부터 쭉 형성돼서 나올 때까지, 왜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삼신할머니라고 불였으니까 그렇지 '자불'이에요. 자불이 그렇게 길러서 백일 때까지 그 과정을 모르게 딱 정돈해 놓곤 그때서부터 바깥에 있는 모든 거를 배우게끔 만들죠. 자불이 수없이 겪어 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이래서 인간까지 올려놓았는데도 그게 없다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자기의 근본 자불이죠, 자불! 그 자불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송장이니까요.

지루하시죠? 허허허…. (합장하시며) 그러면 요다음에 또 만나십시다. 나는 말이에요, 아휴, 할 말을 못 하고 말이에요. 말은 했는데 그 속의 뜻을 전달하지 못해서 해도 한 것이 아니고…. 아이구 참 내! 허허허…. (대중 웃음) 아이구 참!

아까, 비행기 사고로 왜 죽었느냐? 스님은 그러지 않게 할 수 없겠느냐. 왜 죽었느냐, 왜 죽느냐, 왜 자꾸 일이 생기느냐, 벌어지느냐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하나가 모두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말을 했다가…, 허허허…, 그냥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좋게 한다거나 또 여러분을 아프지 않게 한다든가, 여러분을 좀 살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말없이도 할 수 있는 거지마는 그런 질문의 대답은 참, 어려운 거죠.

※위 법문은 1997년 9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사로 접하던 스님의 그간 이야기

스님이 세상에 『소리』를 내 보임은
쪽빛 하늘 같이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텅 빈 가슴으로 욕심 없이 보낸 세월의 흔적을
홀로 간직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절절히 사무치겠다 싶어서겠지요.

"한동안 忍苦의 세월을 보낸 후에
世上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시원스럽게 울어대는 매미처럼
道伴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 수불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저자_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본
12,000원

일선 스님

일찌기 의문을 품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법흥 화상을 은사로 득도
중앙승가대학 졸업, 봉암사를 비롯 제방선원에서 정진
송광사에서 10여 년간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거금도에서 안거 정진 중
금천선원 선원장

에세이 식으로 잔잔하게 풀어간 글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 닿는다. 수행이다. 파도소리도 갈매기 울음도 이름모를 허브, 등대도 눈길 닿고 발길 가는 것 모두가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 불교신문

서울의 유명 꽃집에 전시된 매끈한 장미가 아니라 산길에서 마주한 청초한 야생화라고나 할까요. 심지어 선의 지혜로 풀어 쓴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간혹 거금도의 모래밭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 법보신문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황의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 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밀한 하심을 띄운다. – 현대불교신문

이 책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 사람마다 부처이므로 생각이나 수행방편,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신문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송(02) 2198-5153



불자 세상보기

이 상 호
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성난 불심…’ 이란 표현부터 왜곡됐다

새 정부 들어 공인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일어난 27건 정도의 종교편향적 사건에 대해 전 불교도가 8.27 범불교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각종 언론매체의 머리글에서 ‘성난 불심…’ 운운하는 제목으로 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도 괜찮을까?

하찮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왜곡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미 알다시피 부처님이 지상과제로 삼았던 해탈은 탐욕 · 성냄 · 어리석음으로부터의 벗어남이다. 따라서 불심은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당연히 불심에 ‘성냄’이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과 기본적인 교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말이다. 일시적으로 왜곡된 말이 상용화가 되어버릴 때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접하는 단어들 중에 ‘소란’을 뜻하는 ‘야단법석’이나 ‘끝장’의 뜻으로 변해버린 ‘이판사판’ 등은 불교용어였으나 일상적으로 쓰이면서 본래 뜻이 변화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과잉 검문검색이 불법승 삼보 중에서 승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다면 ‘성난 불심’ 운운은 불심(佛心)에 대한 모독에 해당된다. 만약 불심에 성이 나는 일이 있다면 불교계는 최후의 보루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얼마 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면서 유혈사태가 일어났던 티베트의 경우에도 그 단서는 승려에 대한 폭력사태로부터 시발되었다. 그와중에서도 언론에서는 티베트망명정부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매우 이성적이고 사려깊은 태도를 소개함으로써 그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었다. 비록 우리 불교계가 현재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 대응태도로 비춰지는 ‘성난 불심’ 등과 같은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문구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당연한 주권 행사를 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촛불시위나 범불교도대회 그 자체가 결코 감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소통을 위한 이성적 태도의 마지막 수단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불교계의 마음이 상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유감표명에 그친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던 불교계가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적 태도와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연관시켜 공개적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선양하고자 하는 등의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것이나, 또는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특정종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에 있다. 범불교도대회는 전적으로 감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자질과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명백히 강조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종교편향금지법을 입법화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서 ‘종교편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포괄적으로 법제화한다면 불교계의 본래 뜻과는 달리 오히려 불교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불교계는 타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종단이나 종파를 떠나서 더욱 세심한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종교편향이라는 억지를 부린다면 그 혼란은 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종교편향금지법의 입법화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하여 그 핵심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불교계에서도 입법화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결코 큰 일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먼 미래의 결과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社說

포교 등한시한 업보도 살피자

올 여름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편향’이란 말이 많이 오고 갔다. 불교계는 지금도 종교편향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 대구 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의 울분이 사회에는 널리 전달되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외면하는 분위기다. 의례적인 유감표명으로 해결하려는 듯하다. 물론 그런 인상 때문에 불교계는 더 분노하고 있다.

외환이 생기면 안쪽을 들여다보는 게 사람 사는 도리다. 불교계에서도 종교편향과 관련한 울분의 한 쪽에는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담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 원로 스님은 “반세기가 넘도록 포교에 등한해 온 업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식인은 “불교계가 이미 소수집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며 “불교계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냉철하게 살펴볼 때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종교편향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현실적인 분노와 함께 성찰의 모습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편향의 사례들 속에는 불교계가 먼저 반성해야할 개연성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각에 불자가 얼마나 포진됐는가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정작 지난 반세기 동안 불교계가 인재불사를 잘 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타종교의 극성맞은 선교를 비난하는 동안 포교의 적극성도 함께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과거의 시간이 오늘의 종교편향이라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뼈아프게 되짚어 볼 때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멍청수’

9월 10일 오후 어청수 경찰청장이 동화사를 방문했다가 혼쭐이 났다. 대표종단의 총무원장들과 대구경북 지역 스님들이 2차 범불교도대회와 관련한 모임을 갖는 자리에 예고도 없이 찾아가 썰렁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어청수 청장의 동화사 방문은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감행된 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 청장의 동화사 방문은 몇 가지 상징성을 띤다. 우선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대목에서 여전히 불교계를 ‘어려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냄새가 난다. 얕보는 상대가 아니라면 불쑥 찾아가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불쑥 손을 내밀 때는 그 손을 잡아 주리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다. 오만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관 스님에게 집착 한다는 것은 불교계의 퇴진 요구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게 보인다. 물론 불교계의 대표성을 지닌 분이 지관 스님이고 황당한 불심검문을 받은 것도 지관 스님이다. 하지만 지금 불교계의 분노는 불교계 전체의 것이다. 상징적 인 사와의 화해가 아니라 불교계 전체와의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즉흥적인 동화사 방문은 ‘멍청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어 청장의 사퇴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되었다. 문제를 푸는데 있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계속 ‘악수’를 두게 된다. 한발 물러서서 상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들을 살피지 않는 한 동화사 방문 같은 수를 또 두게 될 것이다. 어 청장이 택할 수 있는 묘수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젠 웃음을 나누어 줄래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1 고통 속에서 찾는 웃음

추석이다 명절이다 하면 가족 친척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겠지만 그럴 때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나서 한번도 가정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가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20대의 한 법우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절망하여 한 때는 교도소 안에서도 자살을 시도하였었다. 그 후 부처님법을 만나 어두운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선생님께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날씨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시죠. 바쁘셔서 쉬실 시간도 없겠네요. 그래도 선생님 마음은 하나도 힘 안 드시고 기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이 많아 하루 종일 가방을 접어도 일을 다 못 끝낼 정도예요. 방으로 돌아오면 책이라도 보려고 해도 펴고 있으면 잠이 와서 금방 덮고 자 버려요. 선생님께서는 더 힘드셔도 노력하시는데 저는 잘 되지가 않네요. 요즘도 가끔씩 분에 못 이기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느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사실 겁이 나요. 아직도 변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런 모습 버리지 못하고 나가면 선생님들 실망시켜 드리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나를 버리자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 과연 오늘은 얼마 만큼 버릴 수 있었는지 생각하고 내일은 마저 버리자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데 이것 또한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네요. 더욱 더 노력해야 겠습니다.

오늘 형에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띄워 보냈습니다. 힘드신데도 저희 형제를 잊지 않고 지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형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다가도 형 생각에 웃음이 나고 그래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웃음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술 마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아버지는 엄마하고 하루도 싸우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엄마를 심하게 때리셨어요. 그러면 저희 둘은 너무 무서워 떨면서 울고요, 엄마를 지키려고 말리다가 대신 또 맞고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너무 싫었어요. 학교에 가기도 싫었고요. 학교 가서도 저녁에 아버지에게 맞는 엄마 모습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도망가고만 싶었지만, 우리 엄마니까 또 집에 가서 말려야 하고, 저도 맞고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자 엄마는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매 맞는 엄마 모습은 너무 불쌍하고 저같아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후 저희 형제는 집을 나와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나가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하니 형이나 저나 웃음이 나와요. 웃을 날도 있었구나 생각하니 신기해요. 이 웃음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인 것 같습니다. 나가서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겠지요. 오히려 전과자라는 이름이 붙어 더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어차피 인생은 고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에서 웃음을 찾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선생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인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형제를 죄악의 구렁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선생님같이 좋으신 분들을 보내 주셨으니 이보다 큰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서 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삶으로 지난 날의 죄악으로 쌓은 업을 조금씩 줄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 선생님들께 받은 따뜻한 사랑이 저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빨리 나가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경도 배우고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요.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냥 보내지 않고 뭐라도 깨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몸 건강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항상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00올림

부처님, 그를 보면 ‘인과니 업보니 붙이지 마라. 고정돼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에 매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그를 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다운 불자로서 마음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자성부처님께 간절히 기원 올립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수월관음도

가정에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가문의 가보 거실에 걸으면 품격



가로60cm 세로90cm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부처님의 영험으로 가정의 소원이 성취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는 집안의 대비주로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대가인 법성께서 판화한 대작으로 수월관음도를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하고 둘째는 섬세한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수가 있을가하고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거실에 걸면 집안의 분위기가 품위있게 바뀐다. 2단 돌출 최고급 표구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까지 처리한 특별 제작된 불화로 이제 두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세기의 불화다. 일부 시중에는 본 불화를 컬러복사해 표구를 그럴듯하게 한다음 진품인양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불광사의 보증서와 소장인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

속령만족제희구(速令滿足諸希求)(불경)
저희들의 온갖소원 하루속히 이루옵고(해설)
수지신시광명당(受持身是光明幢)(불경)
법을모신 이 내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해설)
수지심시신통장(受持心是神通藏)(불경)
법을지닌 이 내마음 신통력의 곳집이라 (해설)
소원종심실원만(所願從心悉圓滿)(불경)
원하는일 마음대로 모두다 이루리다(해설)
〈 천수경 강의 중에서〉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축원불공마쳐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 택배로 안전하게 받아 소원기도 한 다음 소장인란에 서명하고 거실 또는 집안에 걸면된다.
가격1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스님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보시가격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할인)
전화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행,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스님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인도산 천연 백수정 54염주

평생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인도 전설의 염주

화제의 염주 인도에서 스님과 지도층 인사들 사용



수입 기념 특별선물
⊙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
⊙ 불자님께는 천연백수정 합장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54 법륜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과 그 인연으로 인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상사는 동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연법으로 한 사람의 좋은 인연의 만남으로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것과 계획한 것이 쉽게 성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원대한 불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스님, 원대한 불사를 시작했으나 어려우신 분,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평생 인연의 짝을 찾고 계신 분, 건강이 나빠 인연의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분 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54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천연백수정 54염주 외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를 일반불자께는 천연백수정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께는 20% 할인)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자동차 사고예방의 영험! 생명을 보호하는 비방!



■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 스님께서 아끼는 불자에게 안전의 선물

차안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귀족여성들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들에게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 서 목각으로 만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는 한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에게 세상이 험하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선물한것이 인연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살인, 납치, 강간, 유괴, 실종, 하루에도 수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스님께서는 아끼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앞면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넣고 뒷면에는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와 백연화 넣었으며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지갑속에 자동차는 운전석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45,000원.
문의(02)741-4488(사찰스님 20%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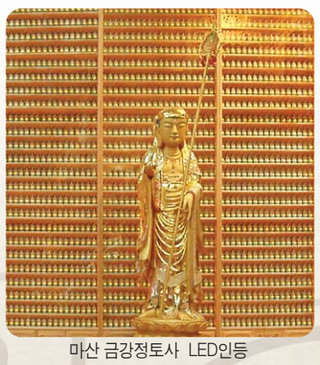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만월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